금주의 기도

천지만물과 역사세계를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리분별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천들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57)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47호 2013년 8월 24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이집트사태 속 알카에다 역습 보인다

뉴스위크, "'아랍의 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성전주의 다시 기승" 보도

알카에다가 미국을 처음 공격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테러조직은 계속 번성하고 있다. 최근의 세계적인 테러 경보가 그런 사실을 새삼 일깨워 준다. 이집트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랍의 봄' 이후 이슬람권이 혼돈으로 빠져들면서 급진주의 무장단체 알카에다에 더 많은 성전주의(지하드) 전사들이 몰려든다. 실패한 혁명과 위태로운 국가들은 성전주의자들을 배양하는 인큐베이터와 같다. 적대감과 폭력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인 셈이다.

알카에다의 최고 지도자인 아이만 알-자와히리와 예멘 지부 수장 나스르 알 우하이시가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방 표적을 공격할 음모를 꾸몄다는 소식은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다국적 회사의 CEO처럼 자와히리는 알카에다의 대여섯 지부와 자주 연락하고 있다. 알카에다의 초대 최고지도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도 미군에 사살되기 전 늘 그렇게 조직을 운영했다. 새로운 점은 그런 지부들의 급속한 성장이다. 알제리부터 예멘까지 이슬람권 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포 조직과 제휴세력들을 말한다. 2년 전 중동을 휩쓴 민중 봉기(일명 '아랍의 봄')는 처음엔 알카에다에 상당한 위협이 됐다. 그 혁명이 테러와 성전 대신 민주주의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혁명은 거의 실패로 돌아갔다. 법질서보다 혼돈이 더 기승을 부린다. 혁명에서 공을 세운 트위터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수라장으로 변한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는 알카에다의 온상으로 변했다.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랬듯이 그곳에서도 알카에다는 번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집트가 문제다. 2011년 혁명으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무너졌을 때 자와히리는 허를 찔렸다. 당시 이집트 혁명에 대한 그의 논평은 전혀 일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의 메시지가 확실해졌다.

무슬림형제단의 지원을 받는 무르시 대통령 하야에 격분한 군중들이, 연일 군부의 시위 통제로 인해 연일 사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난 토요일 알카에다 테러조직 지도자 아이만 아즈 자와히리는 이집트 군대와 공모해 이슬람 모하메드 무르시 대통령을 전복한 미국을 비난했다. 아즈-자와히리에 따르면 "이슬람 반대자들과 친 미국 군대는 페르시아의 돈과 함께 무르시의 전복에 대한 미국의 계획을 수행했다"고 선전 책동을 서슴지 않고, 방송과 SNS를 통해 이집트와 중동권에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 그는 또한 이슬람법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단결할 것을 무슬림 형제단에 호소했다.

이집트 사태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시위대들.

따라서 이집트 군부가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무르시 지지 세력인 무슬림형제단 해체에 나섰다. 무슬림형제단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일주일간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선언해 유혈 충돌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피의 금요일'로 불린 16일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173명이 사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집트 군경이 수도 카이로 나스르 시티 라바 광장과 기자의 나흐다 광장에 집결한 무르시 지지자에 대한 본격적인 해산작전에 돌입한 14일부터 나흘간 계속된 유혈사태의 공식 사망자 수도 800명을 넘어섰다. AFP통신은 이집트 전역에서 무르시 찬반 세력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 6월 26일 이후 사망자가 최소 1,042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집트 군경은 17일 카이로 람세스 광장 인근의 파테 모스크를 기습해 이곳에 피신한 시위대를 해산하고 385명을 체포했다. 무르시 지지 시위대 700여 명은 16일 람세스 광장에서 군부 반대 집회를 하다 군경의 진압을 피해 모스크로 피신했다. 이들은 정문 입구를 책상과 의자 등으로 막고 군경과 대치하다 체포됐다.

이집트 정부는 16일 시위 진압 과정에서 무슬림형제단원 약 10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단 파키스탄 시리아 등 외국인도 다수 포함됐고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수장인 아이만 알자와히리의 형제인 무함마드 알자와히리도 기자의 검문소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정부는 유혈 진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과도정부를 이끄는 하짐 알베블라위 총리는 내각에 무슬림형제단을 해체할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국가를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이들과의 화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3면으로 계속〉

늙어가는 중국...가구당 "1자녀" 빗장 풀다!

NBC, 35년 유지된 인구 정책 변화 조짐 보도

중국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두 자녀' 정책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근거해 NBC 방송은 중국의 노령화 문제로 노동력이 감소하자 35년 동안 유지한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새로운 정권의 개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부모 중 한쪽이 독자이면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30년간 지속돼온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경제보도는 2일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이런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부부 중 약 35.5%가 2자녀를 가질 수 있게 돼 '1가구 1자녀' 정책의 큰 틀이 사실상 무너지게 된다. 중

고령화 사회 진입·남녀성비 불균형 부작용

'단독이태' 일정지역 실시 후 전국 확대 검토

국 정부는 더 나아가 2015년부터는 모든 가정에 2자녀 출생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과도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1가구 1자녀 정책을 의무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실행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농촌 지역, 그리고 부모 모두 독자인 경우 등에 일부 예외를 뒀지만 대부분 가정은 1자녀만 낳을 수 있다. 청언푸 중국사회과학원 마르크스연구원장은 "중국은 엄격하게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해 총 인구를 5억 명으로 줄여야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출생률이 급락해 노동연령(15-59세)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 구조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또한 남녀성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최근 들어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부유층의 해외원정 출산 등으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도 정책 변화의 원인이다.

〈3면으로 계속〉

2면
죄의 원뿌리 자유의 남용에서 찾는다

7면
인터뷰
늘기쁜교회 김홍석 목사, 마크김 준비위원장

16면
은혜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유경옥 전도사 (수곡미술선교회 회장)

2013 아틀란타 연합교회
목회자 리더십 및 비전 컨퍼런스

■ 일 시 : 2013년 10월 7일(월)-9일(수)
■ 장 소 : 아틀란타 연합교회
2534 Duluth Hwy., Duluth, GA 30097

변화와 비전의 목회 리더십으로 성숙!
새 시대의 목회 패러다임으로 혁신!
말씀과 성령 목회를 통한 부흥의 교회!
선교적인 교회로 체질 개선!

[2013년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

1. 비전, 변화, 위기 극복 목회 리더십으로 도약을 위한 각자의 리더십 진단과 평가
2. 전통 교회의 허물을 벗고 새로운 메타 교회로 나아가는 통찰력을 얻게 되며
3. 말씀과 성령 목회를 통한 부흥의 교회로 나아가는 목회론
4. 역동성있는 예배 모델을 세워 나가는 예배 갱신
5. 1세 목회와 2세 교육 사역 및 2세 목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네트웍 사역할 것인가?
6. 어떻게 강력한 선교적 교회로 체질 개선을 할 것인가? 본 교회의 임상 사례를 공개하며
7. 160개의 평신도 사역팀과 140개의 셀그룹 공동체의 역동성 및 평신도 리더 훈련 방법
8. 평범한 어머니들을 강력한 기도의 영성 공동체로 바꾸어 나가는 사역 방법론
9. 새 시대의 실버 세대를 열어가는 창조적인 목회 기획
10. '생수의 강' 이라는 혁신적 프로그램을 통해 불신자를 역동적인 지체로 변화시키는 사역 노하우 등

* 아틀란타 연합교회의 모든 사역과 사역 노하우를 과감히 나눕니다.

강 사 : 정인수 담임목사 외 본 교회 목회팀
참가대상 : 목회 리더십의 개발과 교회 사역 구조의 혁신을 시도하는 목회자와 사모님
회 비 : 일인당 50불 (숙식 및 본 교회 전문 목회 자료집 무료 제공)
신청문의 : 권혁래 전도사 (Tel. 770-605-1921)
e-mail: jesusevent@hotmail.com
김윤수 간사 (Tel. 770.939.4673 ext.113)
e-mail: kcpcyskim@hotmail.com
신청마감 : 2013년 9월 28일(토) 까지

* 신청서는 www.yunhap.org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재〉
1. 정인수 목사 리더십 저서
·교회를 혁신하는 리더십 (두란노)
·영혼을 혁신하는 목회 리더십 (두란노)
·성령으로 혁신하는 리더십 (두란노)
2. 아틀란타 연합교회 전문 목회 자료집

시 론

상 생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표트르 알렉세예비치 크로포트킨(1842-1921)은 러시아의 사회학자, 지리학자로 그가 쓴 책 "상호부조론"에서 "자연에는 상호항쟁의 법칙과 함께 상호부조의 법칙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호부조의 법칙은 생존경쟁에 있어, 상호항쟁의 법칙보다도 우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생존법칙의 최적자란 육체적으로 가장 힘이 센 자이거나 또는 가장 교활한 자가 아니라, 서로가 합심하고 협조를 잘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다. 크게 번성하고 많은 자손을 갖고 있는 무리들은 서로 간에 더 공감하고 협동하는 구성원을 많이 가진 자들이라 말한다. 그러므로 상호부조의 습관을 스스로 몸에 익힌 생명체가 자연의 최적자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며칠 전 고국을 통해서 전해온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특구인 개성공단이 폐쇄 133일 만에 가동 정상화에 전격합의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합의사항들은 없었지만 아무튼 반가운 소식이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주) 과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되었고, 2004년에는 약 15개의 기업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1년에는 123개 기업이 상주하여 있고 북한 근로자의 수도 약 5만명에 달하며, 누적 총생산액은 약 15억649만 달러나 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단순히 기업주들과 노동자들에게만 유익한 곳이 아니다. 그곳은 본래 북한군 2군단 6사단과 62 포병여단이 주둔하여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전방사단에 대한 공격을 담당할 중요한 군사기지였다. 그러나 공단 설립 후 부대가 약 10km 이상 북진하여 남한을 향한 공격의 사정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었다. 개성공단이 계속 가동되어야 할 더 중요한 이유는, 남과 북을 잇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부의 분배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대치상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역할을 해주며, 나아가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는 이음새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금번에 남한과 북한이 합의 도출 과정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남한에 접근해왔고, 남한은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굴복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최적의 시점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여 남한과 북한이 재발을 방지한다는데 합의했다. 금번 합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끈기와 인내를 가진 남북 간의 대화, 서로가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은 것이다.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관계 속에서, 정치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직장에서도, 특히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 교계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은 서로의 관계를 폐쇄시키고 서로에게 큰 상처만 안겨주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겸손의 본이 되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도, 인내도, 유연성도 부족하여 극과 극의 대치국면을 이어갈 때가 많다. 이제 서로의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기싸움만 하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상생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는가?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죄의 원뿌리 자유의 남용에서 찾는다

CT, 풀러신학교 마거리트 슈스터 교수 기고문, "원죄의 수수께끼" 통해 인간의 타락과 구원 소개(상)

우리는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하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죄의 원뿌리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아담의 죄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는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신학에선 대체로 인간이 가진 "자유의 남용"에서 죄의 원뿌리를 찾는다. 인간은 어떻게 그 고귀한 자유를 남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다. 자유는 그래야만 참 자유이다. 그 자유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었을 정도로 완벽한 것이었다고 본다.

인간이 왜 그 자유를 남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나 인간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원죄는 인간 자체의 불완전성과 그 불완전성에서 발생하는 죄된 성품을 말한다. 원죄교리를 통해서 가르치려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과, 인간은 죄를 피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풀러신학교에서 신학과 설교학을 가르치는 마거리트 슈스터(Marguerite Shuster) 해롤드 존 오켕가 석좌 교수의 기고문(The Mystery of Original Sin: We don't know why God permitted the Fall, but we know all too well the evil and sin that still plague us)을 통해 풀리지 않는 원죄의 수수께끼를 명쾌하게 설명해준다(본 내용을 2회에 걸쳐서 연재한다).

G. K. 체스터턴에게 세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체스터턴이 내놓은 답변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는 부패한 정치인이나 전쟁 중인 국가의 해묵은 갈등, 혹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의 탐욕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길거리 범죄나 부당한 법, 부적절한 교육의 문제도 그냥 지나쳤다. 환경 문제라든가 지구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도 그의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사회의 구조악이 제도 속에 깊숙이 침투한 것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체스터턴은 단 두 마디로 대답했다. "바로 나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하라고 교육받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대답은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패와 약점에는 결국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나지 못했거나, 부모의 양육방식에 문제가 있었거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산수 문제를 틀렸다고 창피를 준 선생님 때문에 수학에 아예 흥미를 잃어버렸을 뿐이다. 이런 이유들은 모두 우리 잘못이 아니다. 게다가 우리가 친구들보다 딱히 더 못났던 것도 아니다. 가끔 나쁜 짓을 하는 패거리에 끼는 것이 사는데 훨씬 더 편했다. 우리는 안 좋은 상황에 대해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는다. 모든 거짓말이 나름의 진실을 담고 있듯이 우리 변명에도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긴 하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자신에 대해 거북한 느낌을 지우지 못한다. 어떤 식으로 합리화하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준뿐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사실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그럭저럭 잘 살아왔다 해도, 우리 삶의 끝에는 피할 수 없는 위협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은 우리가 이룬 모든 것과 수많은 변명을 종식시킬 것이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이 죄가 없다고 확신하며 최후의 심판에 임할 수 있겠는가?

아마 체스터턴의 답이 맞을지도 모른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며 살아가면서 죄성을 나타낸다는 '원죄'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독교 교리라고 말했다. 범죄자든 성직자든 누구나 죄를 짓는다. 이런 씁쓸한 결론이 사실이면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찼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죄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세상에 들어와 만연할 수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성경은 이론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성경이 답을 내놓지 않듯이 말이다). 다만 성경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관한 설명은 창세기 2장과 3장, 즉 두 번째 창조 기사에 등장한다. 첫 번째 창조 기사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것을 기뻐하시며 인간에게 특권과 책임이 있는 중요한 자리를 맡기신다. 두 번째 기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깨어진 세상을 그리며 창세기 1장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그림을 제시한다.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 두 번째 기사를 타락의 교리와 연결한다. 바울은 에덴동산에서 일어난 일이 에덴동산에서 그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맨 처음의 잘못은 뒤이어 일어나는 모든 일에 흔적을 남긴다. 아담의 죄는 이후의 모든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바울은 이 광범위한 죄와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원죄가 이어지는 것이나 악한 사람들을 탓하지 않는다. 심지어 죄와 죽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 죄와 죽음을 지적하고 로마서 11:32에서 다시 언급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동시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 예고한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결정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불순종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여겨진다고 볼 수는 없다(롬 5:12).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품 때문에 선한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변명거리가 다 없어지고 나면, 우리가 악을 행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외면했던 것처럼 불가사의한 일로 남는다.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정직한 설명일 것이다.

창세기는 왜 에덴동산의 타락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왜 뱀이(사탄이라 하는 유혹자가)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에덴동산에 들어오게 하셨는지도 전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창세기는 죄의 속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겉으로 보기에 하찮은 유혹의 대상을 생각해보라. 세상을 타락시킨 원인이 고작 열매 하나라니! 존 밀턴의 "실낙원"에서 사탄은 이 사건을 타락한 천사들이 비웃는 일로 묘사한다.

〈3면으로 계속〉

'원죄'는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독교 교리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의심하기 때문

쿠데타 정국 한복판서 유명해진 엘시시 국방장관 행보에 관심

뉴스위크, "'아랍의 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성전주의 다시 기승" 보도

〈1면에서 계속〉

저명한 이슬람학자인 핫산 알반나가 1928년 이슬람 율법 '샤리아'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창립한 무슬림형제단은 병원과 학교 건설 등 빈곤층에 대한 지원으로 아랍권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어왔다.

무슬림형제단은 1954년 가말 압델 나세르 전 대통령 암살 시도의 배후로 주목받은 이후 줄곧 이집트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2011년 '아랍의 봄'으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퇴출되자 자유정의당을 창당하며 정치무대 전면에 나섰다. 하지만 지나친 이슬람 원리주의를 고집하면서 민심으로부터 멀어졌고 1년 만에 탄압의 대상이 됐다.

이집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교장관은 17일 카타르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 "이집트 사태가 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FP통신은 유럽연합(EU) 외교장관들이 이번 주 회의를 열어 원조 중단을 포함한 이집트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터키 이스라엘 알제리에선 이집트 정부의 강경한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열렸다. 다만 무르시 축출 이후 군부를 지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온 미국은 원조 중단 같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는데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국방장관 엘시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로 민정이양 않고 권좌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집트 군부가 14일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서 이집트 민주화 시위의 결과가 군부통치의 회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군부의 무력진압은 지난달 3일 쿠데타 이후 45일 만이며, 무르시 지지자들의 자유로운 시위를 허용하라는 미국 국무부의 발표 한 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군부가 국제사회의 중재와 비난을 무시하고 혼란한 정국을 틈 타 행동에 나섬에 따라 과거 호스니 무바라크 시절의 군부 통치가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군부통치 회귀의 중심인물은 압델 파타 엘시시 국방장관이다. 엘시시 장관은 현재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그의 인기를 생각하면 출마할 경우 당선이 유력하다. 쿠데타 정국의 한복판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됐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조그비의 지난 5월 조사에서 군부는 국민 94%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혁명 이후 혼란과 생활고에 지친 혁명세력과 옛 정권 지지자 모두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 국무부도 엘시시의 정치적 야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결론으로, 엘시시가 민정 이양에서 멈추지 않고 권좌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세속주의 진영으로서는 막기도 곤란해졌다. 군부 쿠데타에 협력한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야권에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만한 지도자도 없다.

따라서 알카에다 수뇌부는 계속해서 이번 군부 무력시위를 허용한 미국을 정면으로 비난하면서, 군부 역시 서방세계에 협조해 이슬람의 기본 가치들을 말살하려는 반 이슬람주의자들로 몰아, 연일 길거리로 나가 시위에 참여함으로 이슬람을 지키는 것이 무슬림의 당연한 계명이라고, 이집트 젊은 세대들을 부추기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늙어가는 중국...가구당 "1자녀" 빗장 풀다!

〈1면에서 계속〉

따라서 중국 정부는 그동안 엄격히 시행해온 '1가구 1자녀 정책(계획생육)'을 이르면 올해 말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독자일 경우 둘째 아이를 허용하는 방안(단독이태)'을 검토 중이다.

단독이태 정책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전면 실시되면 첫 5년간 모두 950만 명의 아이가 더 태어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6일 분석했다.

중국은 1978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00년의 인구를 12억 명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뒤 이듬해 1월부터 '1가구 1자녀'를 기본 틀로 하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써왔다. 이 같은 정책 덕분에 1970년대 초반 5.8명이던 중국의 출산율은 최근 1.5명으로 낮아졌다.

인구 구조의 기형화가 심각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도 단독이태 정책의 추진 배경이다. 중국의 노동연령 인구는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00년 이미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20년대 초반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 2030년대 초반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정부의 인구 정책 변화에 대해 너무 늦었고,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대 앤 리 교수는 이런 정책이 별반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다고 예견한다. 바로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교육이 늘어나면서 여성들 스스로가 산아제한 정책에 편승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 인구정책은 도심에 사는 비교적 어린 엄마들을 목표로 한 것이기에, 농촌에 있는 사람들과 소수민족에는 이런 정책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이런 인구정책을 수정한다고 해도 노령화 인구의 장기적인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것이 앤 리 교수의 예측이다.

결론으로, 1978년 이후 지금까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1자녀를 두는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온 중국이 이러한 정책의 조정을 앞당기고 있는 것은, 소위 "계획 출산"의 한계점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이와 관련, 중국에서 사라져야 할 법이 더 있다. 중국 정부는 지금도 18세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안이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한다. 따라서 이제 중국 어린이들을 위한 자유로운 복음증거는 물론이고, 주일학교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1가구에 2명까지 출산이 허용된다면, 1년에 950만 명의 어린이들이 출산되기 때문이다.

죄의 원뿌리 자유의 남용에서 찾는다

〈2면에서 계속〉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은가? 임신한 십대는 남자친구와 가진 단 한 번의 관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에이즈에 감염된 마약 중독자는 "딱 한 번만 해봐. 아마 좋아하게 될 거야"라는 속삭임에 단 한 번 넘어갔을 뿐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좋아하든 않든 상관없이 마약에 손을 댄 순간 스스로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오래된 한 유명한 조각상은 하와가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뒤로 슬그머니 손을 뻗어 열매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른 척한다. 또한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사소한 잘못과 작은 일탈 때문에 목표에서 멀어진다.

유혹에 넘어가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선 에덴동산 '출입금지'라는 처벌이 너무 과한 조치는 아닌지 의심한다. 이 의심은 계명의 핵심과 출입금지를 명하신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한다. 율법주의가 선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그분의 실제 계명들까지 경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와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타당성에 의구심을 품었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다(창 3:3).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의심하면서 불순종이 정말 위협적인 결과를 낳을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겉으로 보면 이런 의심은 이해할 만하다.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을 거라던 뱀의 주장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으니까. 죽음이 암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긴 했지만, 분명 그들도 곧바로 죽지는 않았다. 불신이 영혼의 숨통을 끊어놓을 만큼 전이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결과가 지연되었다고 해서 취소된 것은 아니다. 의사가 시한부를 선고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죽기 전까지 자신의 몸을 혹사할지도 모른다. 죄의 결과와 진지하게 대면하지 않고 오랫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우리의 영혼을 혹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불신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한다.

〈다음호에 계속〉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내가 영원히 누릴 복

(시 100편)

우리는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힘을 누리듯이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천국 가서도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부으심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시편 100편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에는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감사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즐거움, 기쁨이 항상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솟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평안을, 나의 기쁨을, 나의 인내를 네게 준다고 하십니다. 죄의 인격이 나오던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우리 영에서 하나님의 것이 영원히 나오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즐길 줄 아는, 누릴 줄 아는 훈련을 해서 성숙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육신에서는 불안과 근심, 걱정이 나오지만 영에서는 늘 하나님의 것이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4:14)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의 것을 알고, 영의 것을 알아야 그만큼 내 삶 속에서 주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 자녀들의 영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아주 귀하고 복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지으신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구나,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지식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을 누리고 사는구나!' 이전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 인간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나는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증거는 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요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가 큰소리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재산입니다. 세상이 나를 빼앗지도, 불행케 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감사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지어주신 것이 감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나를 그분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그분이 나를 항상 키워주시는 것이 감사하지요.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담임목사 청빙

아르헨티나 중앙교회는 (Iglesia Presbiteriana Coreana Chung Ang)1972년 8월 6일에 설립된 교회로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중남미 노회에 속되어 있으며 합동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하며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 목회 경력 5년이상 시무하시고 만 40세에서 50세 되신 분으로 청빙합니다.

(1) 제출서류

1. 사진을 포함한 이력서
2. 신앙고백서(A4 용지 2매 이상)
3. 개인 및 가족 소개서
4. 목회 계획서
5. 학위 증명서
6. 목사 안수 증명서
7. 최근 본인설교 2편(인터넷 동영상 1편)
8. 현재 사역교회의 주보 1개월분
9. 현재 사역교회 홈페이지 주소
10. 현재 시무목사 추천서 2명이상 (추천인 서명날인 및 밀봉)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전형방법

1. 1차 서류심사
2. 2차 개별인터뷰
   * 서류심사 통과자만 개별통지후 인터뷰

(3) 제출처

1. Av. Castañares 1435 . Cp 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Iglesia Presbiteriana Coreana Chung Ang
2. E-mail: chungang.ar@gmail.com
3. Facebook.com/chungang.ar

Tel: 0054-11-4921-9395/0509/8860

(4) 제출방법 1. 우편이나 E-mail.
2. 기한: 주후 2013년 8월 31일까지
(2013년 8월 31일까지 발송인 찍힌것 유효)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아르헨티나 중앙교회 청빙위원회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에 복음을 싣고 나갑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담임목사 청빙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교단에 소속으로 Virginia 주 Centreville 지역에 위치한 교회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 격

1.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교단 소속 또는 가입조건이 되시는 분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미국내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
3. 이민목회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신 분(담임목사, 혹은 부 목사)
4.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
2. 가족사진 1매
3. 자기소개서(목회 비젼 및 신앙 간증서)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 목사 안수 증명서
6. 최신 설교 신약, 구약(CD 또는 DVD 동영상 2편)
7. 목사 추천서 2인 이상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서류마감
2013년 9월 13일

제출처
꿈과 사랑의 교회 청빙위원회
P.O.Box 386
Centrevile, VA 20122
(우편으로만 접수)

꿈과 사랑의 교회

KOREAN CHURCH OF VISION & LOVE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여성으로서 인종과 성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공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불행했다.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그 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세에 자신도 미혼모가 되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 그 충격으로 가출한 후 마약복용으로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제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 200파운드가 넘는 뚱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기구한 삶을 살던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친아버지와의 재회였다. 독실한 신앙인이 되어있는 아버지는 딸에게 매주 책을 읽게 했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도 시켰다. 그녀의 삶은 서서히 변화되었다. 그러던 중 19살에 내시빌 TV방송국을 거쳐 볼티모어 TV 방송국의 뉴스앵커로 진출한 뒤 뉴스전달이 너무 감정에 치우친다고 해서 아침방송으로 좌천당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기대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게 된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프로그램이 그녀가 토크쇼의 여왕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되었다.

현재 오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날마다 거르지 않는 일이 있다. 바로 감사의 일기를 쓰는 일이다. 어느 한 날의 감사일기를 들춰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1)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5)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오프라는 자신의 감사 목록을 기록하면서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다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결국 삶의 활력소이자 힘의 원천인 감사의 습관이 오프라를 만들어준 것이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에만 달려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행복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복음서에 보면 문둥병자 열 명이 함께 다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되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다고 눈물로 사례한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사람 한 명뿐이었다. 사례했다는 것은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했다는 뜻인데 바로 그 사례를 우리 주님은 그토록 기뻐하셨다.

생각해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빵을 얻어먹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배가 부르니 다 되돌아가 버렸다. 병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병고치고 나니 간다 온다 말도 없이 다 헤어져버리곤 했다. 이 얘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사례할 줄 모르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문둥병만 고침 받고 돌아갔다. 그러나 돌아와 감사하다고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사람은 믿음으로 육신의 병도 고치고, 영혼의 병도 고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두 가지 병을 다 고치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육체의 병은 고쳤지만 영혼은 병든 채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육체는 건강하지만 영혼은 병들어 시들고 메마른 인생을 사는 것이다. 반대로 육체는 쇠약하고 병들어있지만 그 영혼은 건강하고 구원받아 새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다.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좋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두 가지 병을 다 고치는 것이다. 육신도 고쳤고 영혼도 건강해졌다. 말하자면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물론 여기서 아홉은 유대인이고, 하나는 사마리아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곧 감사해야할 사람들은 말없이 되돌아가고 되돌아가도 좋을 사람은 되돌아가지 않고 눈물로 사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로 구원받고 진실로 영혼과 육체가 다 고침을 받았다고 믿으면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성경적인 신앙은 사람으로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한다. 예수 믿는다고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많아지는 것 아니고 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은 우리 가슴에 감사를 깨닫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진실하게 예수 믿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행복해진다.

푸/ 른/ 초/ 장

김수명 목사
(타코마한인장로교회)

왜 서로 용서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31-32)

용서는 신구약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진리입니다. 구약시대에 범죄자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짐승의 피 흘림으로 사죄함을 받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도 바로 용서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용서해야 합니까?

1. 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을 받아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이라는 현실의 일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쉽지는 않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할 줄 모른다면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까운 가족식구 친구 교인 간의 인간관계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친근성이 오히려 경멸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거리조종을 잘해야 하는 줄 압니다. 어떤 때는 사실 별일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불화하고 불편하고 등지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은 약이나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데 마음의 상처와 멍든 것은 MRI 촬영에도 안 나타나면서 큰 고통과 아픔을 주고 삶의 현장에서 우울, 열등감, 강박감, 증오, 피해의식 등등으로 자신과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픔을 가져오고 굴절된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료하는 특효약은 용서라고 그것을 써보라고 강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고 오늘을 살기 때문에 용서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조금만 낮추면 용서가 보일 것입니다.

2.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3,000명의 정예군사를 동원하여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도망치고 숨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복수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복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국가를 이룩하게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안이숙 사모가 쓴 "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의 책 "숯불사랑"이란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자와 순애는 아주 가까운 친구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경자가 결혼한 후 남편이 미국회사에 취직이 되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경자가 미국으로 떠난 후 혼자 남은 순애는 계모 밑에서 살기도 너무 힘들고 경자가 너무 보고 싶어 미국으로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자는 비행기 표를 사서 순애를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불법으로 오래 있을 수가 없어 자기 부부가 이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순애가 자기 남편과 결혼한 것처럼 하여 영주권을 얻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순애는 그 남편과 사랑에 빠져 경자를 내쫓고 말았습니다. 여자의 일생을 통해 겪어야 했던 최대의 불행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서 받은 상처는 어찌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달랠 길 없어 방황하다 지쳐 쓰러졌던 경자를 돌봐준 미국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신앙도 갖게 되었고 나이는 좀 많지만 부유하고 마음씨 좋은 미국노인과 함께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자는 순애와 전 남편이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예전에 자기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던 지난날의 고통스런 기억보다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그때 두 사람 다 의식을 잃은 채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의식을 차린 순애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순애야,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정말이야 내가 다 도와줄게. 그리고 경자는 평생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는 순애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모든 수발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몇 배로 복수해도 시원치 않고 용서할 가치도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 베푸는 것이 어리석고 자신이 손해 보는 것 같으나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3.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한 없는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죄를 용서함 받은 우리는 적은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형벌을 받을 죄인이 무죄선언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삼세번과 같은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완전히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하신 용서교훈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주심과 같은 그런 완전한 용서를 우리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총장을 지낸 홍일식 박사가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를 "도둑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비교를 했습니다. 황희 정승이 젊은 시절 어느 시골을 지나다 주막에 들려 쉬게 되었는데, 그 때 마침 거위가 구슬을 집어 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 그 집주인이 귀한 구슬을 잃어버렸다며 난리를 치더니 남루한 옷을 입은 황희 정승을 도둑으로 몰아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하룻밤 구류를 당한 후 다음 날 문초가 시작되자 황희는 "거위가 지금쯤 똥을 누었을 테니 주막에 가서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관리가 달려가 보니 과연 거위의 똥 속에 구슬이 있었습니다. 관리가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묻자 황희는 "내가 그때 사실대로 말했으면 주인이 거위의 배를 갈랐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거위를 살릴 수 있지 않은가"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사람들이 누명을 썼을 때 즐겨 쓰는 가슴이 서늘하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 일본 시골에 떡 장수와 가난한 무사가 이웃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사의 아들이 떡집에 와서 놀고 간 뒤 떡이 한 접시 없어졌습니다. 떡 장사가 무사에게 달려와 "당신 아들이 떡을 훔쳐 먹었으니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무사는 "아무리 가난하지만 사무라이의 아들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떡 장사가 물러가지 않고 계속 돈을 내라고 하자 무사는 "내 아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마"라고 말한 뒤 아들을 칼로 찔러 배를 갈랐습니다. 거기에는 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떡 장사의 목을 베고 자신도 자살했습니다.

이 두 일화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다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만, 오해에 대해서는 관용이 지혜로운 용서를 택하는 길인 줄 압니다. 용서는 복수도 앙심도 아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는 어딘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배지는 사랑 즉 용서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므로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용서 못하는 자신이요, 용서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용서하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맘 깊이 새겨 영육 간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목사청빙

본교회는 워싱턴주 씨애틀 근교에 위치한 27년 된 장로교회 입니다
그동안 시무하시던 담임목사님이 한국의 대형교회에 청빙이되어
갑자기 떠나심으로 부득히 후임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코져 합니다

자 격 장로교교단에서 목회하실수있는 선한목자로서
목회경력 5년이상 되신분 (박사학위소지자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제출서류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설교 DVD 혹은CD

제출마감 2013년 9월 30일

제 출 처 BELLEVUE KOREAN PRESBYTERIAN CHRUCH
3105 125TH AVE SE BELLEVUE WA 98005
(425) 562 9191 (C) 425 444 450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벨뷰한인 장로교회
청빙위원일동

www.bellevuekpc.com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USB(MP3) 발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본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춘 목사)이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성지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 15편 전체가 USB(MP3) 메모리로 제작됐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0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한 도전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강의하며, 특히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목회/선교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선교 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3강의와 2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한 강의 당 1시간 15분 씩 주어져 총 소요시간 16시간. 특히 기존의 CD가 아닌 명함 크기의 USB로 제작돼 지갑 속 휴대가 가능케 함으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가격은 30달러(국내우송료 포함).
강사는 김성길, 김종준, 장영춘, 권태진, 황의영, 이영섭, 김기원, 김승천, 이만형, 김혜천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수록돼 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 (미국내 우송료 포함)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의학적으로 보는 동성애의 실체 (3)

어릴 때 강제적 성경험은 동성애자 될 확률 많아
치유 효과 7, 80%...방해 많지만 기독교상담 후원

1. 동성애는 치유될 수 있다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이나 기관을 영어로는 Conversion Therapy 또는 Reparative Therapy라고 한다. 미국에서 Conversion Therapy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다. 또한, 미국의 의학 분야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20세기에만도 지금은 APA(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로 불리지만 그 당시의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의해 동성애가 비정상적인 라이프스타일이며 충분히 conversion 또는 reparative therapy를 통해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결론들이 나왔었다.

2. 치유 받고자 하는 동성애자들

Family Research Institute의 폴 카메론(Paul Cameron) 박사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십대나 사춘기 때 또 다른 나이가 더 많은 동성애자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동성애자가 되는 찬스가 높다고 했다.

1970년대 보고서를 썼던 웨인버그(Weinberg)와 헤머스밋스(Hammersmith)라는 박사들은 동성애자들이 근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이성애자들이 근친 성관계를 하는 것보다 100% 높다고 발표했다.

폴 카메론 박사가 1984년에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남동생이나 사촌동생 등을 꼬셔서 동성 성관계를 갖는 경우는 이성애자들과 비교할 때 1500%나 높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따라서 필라드(Pillard)나 베일리(Bailey)가 발표했던 쌍둥이들이 같이 동성애였다는 자료는 결국, 선천적인 이유가 아니라, 동성애 형제의 행위에 의해 또 다른 쌍둥이 동생을 동성애로 끌어들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보고다.

엑소드스 인터나숀올의 멜빈 왕(Dr. Melvin Wong) 박사에 의하면 70% 이상의 동성애자들은 십대 때 더 나이 많은 동성애자를 통해 성경험을 한 사람들로서, 그들 또한 성장하며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동성행위를 하게 되는 성인으로 자라게 된다고 조사 발표했다. 참고로, 이들 중 아동소아성애자들도 변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성애 행위"와 그 행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들로 인해 어린이들이 심각한 성적 혼돈과 그들의 영혼이 유리가 깨지듯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Conversion Therapy나 Reparative Therapy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당한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도와주도록 하는 기관들을 세우며, 한두 번의 실수를 후회하며, 이성애자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어린 피해자들부터 성인피해자들까지 그들이 당한 동성애 삶에서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또한 그렇게 돌아온 사례가 많기에 미국 전역에서 이 사역과 의료기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3.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연구자료들

1962년에는 Irving Bieber과 함께했었던 연구진들이 "남성의 심리와 남성동성애"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동성애자들이 진정 원한다면 그들이 다시 이성애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연구 자료를 내놓았으며, 같은 해 Albert Ellis가 ReasonandEmotioninPsychotherapy,라는 책을 내놓았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동성애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근본적 원인들은 보통 신경적장애에서 오거나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취향을 가진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연구내용이다. Albert Ellis는 1965년에는 좀더 상세하게 동성애자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으며 다시 이성애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연구 자료들을 내놓기도 했다.

1968년 찰스(Charles Socarides) 박사의 첫 번째 저서 "외적행위인 동성애"(The Overt Homosexual)는 동성애자들이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을 준 매우 유명한 책이 됐다. 그 책에 의하면 동성애는 "매우 여성위주적인 억압된 가정에서 자라거나, 특별히 아버지가 부재 중이고 강한 여자들 사이에서 억눌리며 자란 아이들, 불화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주로 동성애로 가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강한 여성들과 아버지 부재가정에서 자란 남자아이가 동성애 체험을 했다면, 그가 십대를 지나기 전에 그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해주는 것은 최고 중요하다고 한다. 만일 십대 때 이그러진 성적 취향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 남자아이는 성인이 되면서 동성애가 될 수 있는 확률이 75%이상이라는 연구조사다. 그 아이는 거친 남자아이들과 놀기보다는 부드러운 여자아이들과 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또는 더 심각한 성적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춘기와 십대 때의 경험은 그 아이의 성정체성을 확신해주는 체험으로 남기 때문이라고 한다.

1970년도에는 Lawrence Hatterer 외 여러 의사들의 거듭되는 연구조사에 의하면 동성애자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시 이성애자가 될 수 있다는 검증된 의학적 연구와 사실적 통계자료들은 계속 나왔다.

그 외에도 얼바잉 비버 박사의 20년 조사에 의하면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뀔 가능성은 30-50%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정신과의사 Wilson 박사는 기독교인인 동성애자를 치료했을 때 55% 성공률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Masters와 Johnson이 67명의 동성애자와 14명의 레즈비언을 치료한 결과, 6년 후에 71.6%의 성공률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 이후에 임상심리학자 Kronemeyer 박사는 80%의 동성애 남성과 여성이 치료 후 만족스러운 이성애자로 변화됐다고 밝혔다.

4. 동성애자들이 정상인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기관들:

동성애자들이 정상인으로 도와주며 그들의 치유가 가능함을 가장 많이 홍보해주고 있는 기관 중 하나는 NARTH(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 Therapy of Homosexuality)다. 이들은 그동안 수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정상인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줬다. 그 외 상담의사들로는 Dr. Melvin Wong이나 Robert Brennan이 있으며, 산호세에서는 West Gate Church에서 그들을 환영하며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 동성애/성전환자들이었다가 정상인들로 돌아와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돕는 기관도 여럿인데 그중 하나는 Restored Hope Network라는 기관으로, 이 기관과 함께 일하고 있는 상담, 사역 기관들이 동성애자들이 원한다면 정상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 기관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Ex-gay/les(옛날엔 동성애자)였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5. 정상인으로 돌려주는 기관들과 Conversion Therapy에 대한 공격

그러나 1969년에 뉴욕에서 stonewall Bra Riot이라는 당시 유명한 데모가 일어나면서 동성애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1970년대 초부터 동성애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가장 먼저 공격받기 시작한 것은 conversion therapy였다.

〈13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저는 어릴 때 아버지의 실수로 상처를 받아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지 못하고 반항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생활을 하는데 까다로운 상사가 있어 힘들게 합니다. 그냥 직장을 그만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토랜스에서 Lee

A: 예 이것은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권위를 경험합니다.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부모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의 우산 밑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고 부모의 권위 밑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권위 구조를 두시고 그 분의 축복과 생명과 풍성함이 그 권위자를 통해 흘러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권위자는 축복의 통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밑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eksousia)라고 하는데 이는"...로부터"라는 의미의 "엑크"와 "본질"이라는 의미의 "우시아"가 결합한 단

권위자는 축복의 통로...인정하고 순종해야

어입니다. 그래서 권위란 단어는 "본질로부터 나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 본질이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다" 란 뜻입니다. 즉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롬13:1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했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의식이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행동과 모습이 존경스럽지 못해도 아버지는 존경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 이 땅에 나왔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용서하며 아버지에 대한 반항과 오만했음을 자백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창9장의 노아가 그 케이스입니다. 노아는 의인으로 홍수심판 후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영적으로 방심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평온한 한 날 그는 술에 만취하여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하체를 드러내면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우연히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술 취한 아버지의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은 밖에 나가서 그것을 자기의 두 형제에게 그것을 고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말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에 대해 판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말로 비난하고 조소 띤 얼굴로 경멸의 태도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함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된 태도로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비판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함과 같은 태도와 행동을 취하기 쉽습니다.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볼 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로 가족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지만 아버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행동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2가지입니다. 첫째 권위자가 자신의 권위를 악용하여 자신의 권위아래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파괴하고 결박하며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둘째 사탄은 권위자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반항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파괴와 불신 분열과 아픔을 남깁니다. 그리고 형제님은 현재 까다로운 직장상사라도 힘들지만 직장을 그만두면 안되고 그 밑에서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엡6:7).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On Campus Courses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A Session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B Session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 Aug 26-30(8월 26일-30일)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Korea
• Nov 4-8 (11월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Los Angeles, CA
• Sept 16-20 (9월 16일-20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Eddie Kim(김의원박사)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회서신

후회(後悔)와 회개(悔改)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후회(後悔)란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팠던 과거의 기억들을 생각해내고, 그 잘못된 점을 뉘우치는 행위이다. 후회는 때로는 좌절과 절망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나약한 점도 있지만, 자기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명백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면도 있다. 사실 인간치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선택에 대해 후회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인생 자체가 후회의 연속적 행로이다. 그러므로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후회는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역동적인 활력소로 작용한다. 후회하는 만큼 그 경험이 배가되어 인생의 성숙도를 높여준다는 것이다. 후회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남은여생을 이전처럼 살지 않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1. 미국인 보통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는 5가지 후회

(1)교육, 학교에 대한 후회-각자에게 주어진 졸업장이나 학위를 중도에서 포기한 이들의 후회 (2)직업에 대한 후회-"그 직업을 그만두는 게 아니었는데...", "이 분야로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후회 (3)로맨스, 배우자에 대한 후회-배우자의 잘못 만남에 대한 후회 (4)가족, 자식에 대한 후회-"가족,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 (5)영성문제에 대한 후회-"교회와 신앙생활에 좀 더 몰두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

2. 후회에 대한 유대인의 격언-"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 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3. 주자십회(朱子十悔:주자의 10가지 후회)

12세기 송대(宋代) 유학자 주자(朱子)의 가르침,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한 삶의 교훈이다.

(1)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죽은 뒤에 후회한다(不孝父母死後悔) (2)가족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후회한다(不親家族疏後悔). (3)젊을 때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少不勤學老後悔) (4)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후회한다(安不思難敗後悔) (5)부자일 때 절약하지 않으면 가난한 뒤에 후회한다(富不儉用貧後悔) (6)봄에 종자를 갈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春不耕種秋後悔) (7)담장을 고치지 않으면 도적맞은 뒤에 후회한다(不治垣墻盜後悔) (8)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병든 후에 후회한다(色不謹愼病後悔) (9)술 취할 때 망언된 말은 술 깬 뒤에 후회한다(醉中妄言醒後悔) (10)손님을 접대하지 않으면 떠난 뒤에 후회한다(不接賓客去後悔).

후회(後悔)란 자기가 한 행동이나 선택 등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뉘우치는 의식상태다. 그냥 뉘우치고 한탄하는데 그치면 그것은 말 그대로 회한(悔恨)일 뿐이다. 그러나 뉘우친 부분,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회개(悔改)이다. 회개는 그리스도교에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이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후회는 또 다른 후회를 불러오지만, 회개는 잘못에 대한 완전한 돌이킴,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 후회는 다시 뉘우치면 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젊은이들 왜 교회 떠나나" …

"밀레니엄 세대(Millennials)는 왜 교회를 떠나는가?" 미국에서 젊은이들을 향한 교회의 역할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레이첼 에반스(32)라는 기독교인 작가가 지난달 27일 이런 제목으로 케이블뉴스채널 CNN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앙 칼럼난에 쓴 글 때문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20만여 명이 이 글을 읽고 '좋아요'를 눌렀고, 트위터에서도 3000명 이상이 퍼 날랐다. CNN 홈페이지에는 이례적으로 76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워싱턴포스트(WP)와 허핑턴포스트, 폭스뉴스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큰 논쟁을 촉박했다"고 앞 다퉈 소개하고 유명 작가와 목회자를 끌어들이며 논쟁에 뛰어들었다.

레이첼은 "20대를 끌어들이려면 최신의 음악과 카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비하고 목사가 청바지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많다"며 "카페라떼 한 잔 건네준다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쿨하지 않아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떠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밀레니엄 세대(18-33세)는 성 문제에서만 거룩을 강조하지 말고, 검소한 생활과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돕는 일,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일도 거룩하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교회를 원한다"며 "젊은이들을 교회로 데려와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힙스터 기독교인'이란 책을 쓴 브렛 매크래컨은 지난달 31일 WP에 보낸 기고문에서 "교회가 쩨쩨하게 이미지에나 신경 쓰고 젊은이들의 눈치나 봐선 안 된다"며 "우리 20대들은 내게 맞춰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원한다"고 반박했다.

시라큐스 풍성한삶교회의 설립자 존 카터 목사는 폭스뉴스를 통해 "교회는 항상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모든 이를 포용하면서도 죄에서 떠나라고 전해야 한다"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듯이, 언젠가는 지금의 젊은이들도 교회에 나와 다시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더 어린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폭력과 갈등 끝내고 화해하자"

이집트 기독교의 평신도 지도자인 나구이브 사위리스가 폭력과 갈등을 끝내고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화해하자고 호소했다.

사위리스는 18일 자신의 트위터(@NaguibSawiris)에 올린 글에서 "무슬림형제단과 그 추종자들에게, 국민은 어느 정치세력보다 더 위대하고 가정은 어느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다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며 "이슬람 역시 어떤 증오보다 더 큰 종교다. 이집트인들은 공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무슬림형제단 출신의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축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집트의 정치적 혼란은 지난 14일 군대가 이슬람 시위대를 유혈진압하면서 기독교인과 무슬림 간의 종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기독교인이 시위대의 첫 번째 목표가 되고 있다"며 "콥트 교회는 물론 복음주의 교회와 정교회, 가톨릭도 공격을 받고 있고 기독교인의 가정과 사무실까지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구이브 사위리스는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에 화해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은 이집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척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이집트를 씻기시고 이 땅의 아들들이 다시 화해의 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믿는다"며 "상처 받은 모든 이들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악에서 이집트를 지키시기를 간구한다"는 기도를 트위터에 올렸다. 사위리스는 기업가이면서 이집트 자유당 창당에 참여한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다. 그의 트위터 팔로어는 100만명이 넘는다. 그는 이집트의 기독교인을 향해서도 "지금의 아픔과 슬픔, 희생을 견디는 자에게는 분명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폭력과 약탈에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중국지하교회 목사 장례예배에 3만여명 운집

중국 지하교회 원로 새뮤얼 램 목사의 장례예배에 수만명이 운집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지난 16일 광둥성 광저우에서 거행된 장례예배에는 3만여 추모객이 몰렸다. 장례식장 직원은 "광저우 전직 당서기의 장례식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사복경찰이 대거 배치됐으며, 중국 정부는 인권변호사 등 일부 인사의 참석을 막았다.

장례예배에 참석한 원위(38) 변호사는 "예정대로 주일인 18일에 장례예배를 드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통제 불능 상황을 우려해 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지난 3일 88세를 일기로 소천한 램 목사는 가정교회로 불리는 중국 지하교회의 원로였다. 중국 정부가 허가한 삼자교회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년 동안 복역했다. 그가 출소한 뒤 광저우에 세운 교회는 매주 5000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장해 중국 정부도 예배를 막지 못했다.

이집트 최악 유혈사태… 교회 40여곳 불타

이집트 고유 기독교 분파인 콥트교회와 현지 기독교인들이 최악의 유혈사태 속에서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 세계교회를 향해 기도를 부탁했다. 현지 교회들에게는 결속과 이웃 사랑을 강조했다.

콥트교회 교황 타와드로스 2세는 지난 16일 "콥트교회는 이집트 땅에서 벌어지는 애석한 사태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테러리스트들과 무장폭력 세력에 대항하는 이집트 국민들과 보조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타와드로스 교황은 이어 "현 사태는 무슬림 형제단과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의 선동과 폭력이 원인이 된 측면이 많다. 콥트교인들은 예배당이 파괴되는 것을 이집트 회복을 위한 희생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현지 신문인 '마스리 알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현지 콥트교회와 이집트성서공회, 개신교회 등은 이번 군부의 강경진압으로 무슬림 형제단 소속 이집트인들이 희생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지난 6주간 무슬림 형제단이 공공장소를 점거하고 폭력 행위를 이어온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세계교회를 향해 "사태를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집트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중동의 기독교위성TV SAT-7이 보도했다.

SAT-7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격화된 소요 사태로 지금까지 40여개의 교회와 3개의 이집트성서공회 소속 기독교서점, 3개의 기독교학교, 보육원이 불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콥트교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신앙적 결속을 다짐하고 있다. 타와드로스 교황을 비롯한 이집트성서공회 라메즈 아탈라 사무총장, 이집트 최대 장로교회인 카스로두바라교회 파에즈 이샤크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은 "교회 건물이 진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며 '신앙 안에서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 복음주의루터교회, 사상 첫 여성 감독회장

[미션라이프] 한 기독 단체가 독일에서 일본군 위안부미국 최대 교단 중 하나인 복음주의루터교회(ELCA)에 사상 첫 여성 감독회장이 탄생했다. 복음주의루터교회는 지난 14일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총회를 열어 엘리자베스 이튼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했다. 이튼 목사는 전체 889표 중 600표를 얻어 3선에 도전한 마크 핸슨 목사를 큰 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ELCA는 1만개 이상의 교회와 400만 명 이상의 교인을 가진 미국 최대 교단 중 하나다. 개신교단 가운데 침례교와 성결교 다음으로 교인 수가 많다. 이처럼 큰 교단에서 여성 목회자가 수장으로 선출된 것은 교회내 여성의 역할 확대라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튼 목사는 오하이오 주 클리브랜드 출신으로 우스터대학과 하버드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튼 목사는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서 교회에 오는 어떤 사람이든 환영해야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유럽계 백인 중심으로 구성된 루터교회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루터교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2009년 동성애자들에게도 목회의 길을 개방해 큰 논란을 낳았다. 그 영향으로 600여 개 소속 교회가 이탈하고 수많은 신도들이 떠나는 진통을 겪었다.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P통신 기사에 대한 풀러신학교의 입장

1947년 개교 이래 풀러신학교는 초교파 복음주의 신학교로서 다양한 교단의 한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평신도지도자들,그리고 신학자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풀러신학교를 졸업한 한인 동문들은 현재 한국과 북미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세계선교와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풀러신학교는 한인교회의 매우 긴밀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한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평신도지도자들에게 신학, 선교, 심리상담 분야에서 수준높은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7월 13일 AP 통신의 인턴 기자가 작성한 풀러신학교의 '원 테이블(OneTable)' 이라는 학생 그룹에 대한 기사와 이 기사를 근간으로 작성되어 한인 언론에 소개된 관련 기사들로 인해 적지 않은 분들께서 풀러신학교에 대해 염려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들로 인해 풀러신학교 재학생과 동문은 물론이고 풀러신학교를 사랑하시는 여러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점부터 말씀드리자면, AP통신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풀러신학교가 가진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나 원 테이블 학생 그룹의 실제적인 성격을 왜곡하여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야기했다는 점입니다. 오해의 핵심은1) 원 테이블이 풀러신학교 안에 존재하는, 동성애자들 위주로 구성된 학생 그룹(LGBT group)이라는 것이고, 2) 학교가 이런 동성애자 학생 그룹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풀러신학교는 이 오해들과 관련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안에 대한 학교의 정확한 규정과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풀러신학교의 입장

동성애와 관련한 풀러신학교의 입장은 풀러의 공동체규범(Community Standards: http://www.fuller.edu/about-fuller/mission-and-history/community-standards.aspx)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범에 의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세우신 영속적 언약(창 1:26-27; 2:24; 막 10:6-9)이며 이와 같은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 행위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애적 행위와 동성결혼은 풀러신학교의 정책에 분명히 위배됩니다. 그리고 풀러신학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학교의 공동체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간에 어느 누군가가 이러한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학교는 공동체 규범에 따라 퇴교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여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원 테이블의 성격과 이를 승인한 학교의 취지

AP 통신 기사는 원 테이블을 동성애자 학생들로 구성된 성소수자 그룹(a LGBT group)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 그룹은 풀러 내에 있는 24개의 학생 그룹 중 하나로서, 성과 동성애 이슈를 포함하여,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신학적, 윤리적, 목회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자유로이 토론하도록 허락된 그룹입니다. 풀러신학교가 이 학생 그룹을 허락한 이유는, 학생들이 오늘날 사역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 성경적으로, 목회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성과 동성애와 관련한 많은 이슈들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 동거, 외도, 이혼, 성중독, 동성애 등의 이슈들과 기타 관련 이슈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학교에서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 테이블 학생 그룹은 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토론하는 학문적 그룹이지 동성애적 행위나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정치적 단체가 전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원 테이블 학생 그룹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홈페이지에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홈페이지의 일부 내용은 학교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원 테이블 학생 그룹의 일부 회원의 개인적 의견이 마치 이 그룹 전체의 입장인양 표현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 테이블 그룹은 풀러의 공동체 규범에 반하는 정치적 그룹이 아닙니다. 이번 AP 통신 기사로 인해 생긴 오해들 중 일부에 대해 해명하면서, 풀러신학교는 학교의 정책과 어긋나는 몇 가지 이슈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원 테이블 학생 그룹이 공동체 규범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활동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풀러신학교를 신뢰하고 기도해주신 여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번 일에 대해 아직도 의구심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학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하고 책임 있는 해명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풀러신학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풀러신학교의 모든 교수와 직원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풀러신학교

문의하실 곳(연락처)
풀러신학대학원 한인목회학 박사원(KDMin) 626-584-5244
풀러선교대학원 한국학부 (KSIS) 626-584-5541
Fuller Public Affairs: 626-584-5695

인/터/뷰 늘기쁜교회 김홍석 목사, 마크김 준비위원장

엘살바도르선교센터 건립모금 음악회 준비

"세상의 빛 교회에 맡기신 선교 사명 다한다"

엘살바도르 선교센터 건립, 현지목회자연장교육과 중남미선교 발판

여름철이 되면 교계는 더욱 바빠진다. 학생 청년들의 여름방학에 맞춰 여름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기선교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세계선교가 시작되면서 언제부턴가 선교 패러다임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단기선교는 이제 한인 교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 됐다.

뉴욕 한인교회에서도 여름철 단기선교가 개 교회별로 혹은 연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는 교회건물을 임대해주고 있는 엘살바도르 기독교인들과 연결돼 지난해부터 엘살바도르 선교를 하고 있다. 올해는 단순한 단기선교 뿐 아니라 건축비가 모자라 건축이 중단된 현지 선교센터 건립에 교회가 발벗고 나섰다. 오는 25일 선교후원 음악회를 앞두고 김홍석 목사와 마크김 집사가 본사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김홍석 목사와 마크김 준비위원장

"단기선교는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 18명이 가서 주로 의료선교를 중심으로 안경, 미용, 전자제품 수선, VBS 등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8명이 다녀왔는데 주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VBS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보통 VBS는 주로 교회에서 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공립학교에서 허락을 해서 학교와 교회에서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부터 10학년까지 아마 6, 7천명은 참석했을 겁니다."

김홍석 목사는 늘기쁜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교회에서 소개한 찰레타냉고는 온두라스 국경지역이라고 소개하고 지난해 단기선교를 가보니 지역 원주민 목사들이 전혀 신학적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그래서 선교센터가 건립되면 목회자 연장교육과 지속적인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립비용은 총 6만 달러지만 늘기쁜교회에서 3만 달러를 준비하면 매칭 펀드로 나머지 3만 달러는 현지인들이 맡기로 했다.

동 교회는 그 선교센터를 발판으로 엘살바도르 뿐 아니라 남미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왜냐하면 남미 사역자들이 제대로 신학공부를 한 사람들이 없어 목회자 연장교육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음악회 재정은 광고 위주로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티켓판매인데 꽤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교회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잘되고 있습니다. 음악회 수준이 동부에서는 보기 드물다고 자부합니다. 약50인조 브라스 밴드가 연주하게 되는데 웅장하지요. 작년 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던 4개 교회 연합 음악회에 참여하고 난 후 25명 이상의 주 멤버가 그동안 연습을 해왔고 이번 음악회를 앞두고 단원을 늘려 매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음악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은 마크김 집사((테너색소폰, 리틀넥오토바디숍 운영)는 교회자랑도 멈추지 않았다. 작년 4개 교회연합 음악회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준비한 교회는 늘기쁜교회 뿐이었단다. 매주 연습할 때도 저녁식사를 꼭 교인들이 준비한단다. 김집사는 쉽지 않은 봉사라며, 이번에도 음악회 하는데 뭘 도와야 되는지 교인들이 물어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음악회를 담당하는 조이플 찬양대(이종식 단장, 지휘 장걸)는 색소폰(앨토, 테너, 바리톤), 튜바, 트럼펫, 클라리넷, 플룻, 드럼, 바순, 트럼본 등 다양한 악기로 구성돼 있다.

김집사는 이번 음악회 뿐 아니라 정기적인 연주회를 통해 선교자금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선교 후원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홍석 목사는 동 교회가 소속된 ARPC 교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올 단기선교 때 미국교단의 목사님과 동행했는데 선교센터가 건립되면 교수도 보내서 현지 사역자 양성을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인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으로 확대되면 교단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지인들을 훈련시켜 현지인들을 복음화 하는 게 선교의 주요 전략이죠."

김 목사는 작년 단기선교 때 교회에서 의자를 빌리려고 했는데 성물이므로 교회 밖으로 내놓을 수 없다는 현지 목사의 강경한 말을 듣고 선교센터 건립의 도전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단기선교팀이 가면 소 한 마리를 잡아 동네사람들을 다 초청하는데 모두들 좋아한다고 한다.

김홍석 목사는 마지막으로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선교의 일은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므로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엘살바도르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 음악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불경기에 건립기금을 모금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일로 여기고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일로 귀한 하나님의 기관이 세워져서 그 지역의 많은 원주민 목회자들의 연장교육과 목회의 회복을 이룰 좋은 도구로 사용될 줄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성가곡과 데니보이, 사운드 오브 뮤직 등 일반 음악 및 행진곡이 주로 연주된다. 또 게스트로 소프라노 박진원, 바리톤 양군식, 클라리넷주자 김하나, 트럼펫 김철호, 콰르텟 피리 등이 합주한다.

▲후원문의: (646)287-7169

〈유원정 기자〉

가정사역 칼럼

이성에게 호감을 갖게 하려면 (남성을 위한 팁)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결혼 적령기의 청년 및 재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여름휴가 및 단기선교를 마치고 후속모임들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모임들에서 이성친구들과 만나 미래를 계획해보기도 합니다. 결혼에 이르기 위해 남성을 위한 충고(여성으로부터 호감을 갖게 하려면)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는 남성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질 때입니다. 또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여성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남성은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남성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고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아는 남성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며, 분명한 신앙을 소유한 형제로 자매들의 관심을 사게 됩니다.

둘째로는 분명한 목표나 계획을 가진 남성으로 계획, 꿈, 방향, 통찰력, 일관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나 목표의 크기에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열을 바칠 때 자매들은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셋째는 책임감 있는 남성입니다. 그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할 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형제는 또한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인생을 설계해 나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넷째는 세심한 것에도 주의하는 남성으로 데이트하는 여성의 머리 모양의 변화, 새 옷, 등의 사소한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곤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상대 여성을 숙녀로 예의 바르게 대우합니다. 그녀의 기도제목이 무엇인지,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심을 가져주고, 가족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섯째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남성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조언해주고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이럴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해 주고 도움이 되어주시면 여성이 호감을 갖게 됩니다.

여섯째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남성입니다. 온화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여 상대 여성을 섬김으로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데이트하는 여성의 환경이나 시간 등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 여성의 숨은 재능 등을 찾아내어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 보십시오.

일곱째는 데이트를 신청하거나 청혼을 할 때 명확히 의사소통을 하는 남성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때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거절당할 것까지 고려하고 여러모로 준비를 하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이왕 마음을 먹었다면 쉽고 명확한 표현을 하십시오. 데이트를 신청할 때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여성들은 친절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남성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다음은 위에 말씀드렸던 형제들이 계획성과 자신감을 가졌을 때 결혼에 골인하게 된 사례입니다.

민수는 주현과 모임에서 알고 지냈지만 개인적인 만남은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단 둘이 데이트를 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여행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직업의식을 동원하여 주현이와의 첫 데이트에서 점수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민수 형제가 제시한 데이트 방법입니다.

민수씨는 주현에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이고, 이 정도의 시간이면 어디어디를 다녀볼 수 있고, 그곳들의 특징은 이러저러한데 어디를 가고 싶은지, 또 어떤 활동을 하기 좋아하는지 등을 이야기 해주십시오"라고 물어본 뒤 주현의 선택에 따라 최대한 알찬 첫 데이트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후일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주현은 훗날 자신이 민수와 결혼하게 된 동기에 대해 "민수 씨가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주어서 그를 신뢰할 수 있었고, 나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결혼적령기에는 데이트와 결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책을 통해 지식도 갖추고 주변사람들의 도움도 받아 건강하고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메일: milykum@gmail.com

순복음 북미수호총회 교회가입 및 전도사 임명, 목사고시 공고

2013년 본 총회는 4차원 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코저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목적으로 차세대 목회자 육성 및 선교와 상호 협력 목회 지원을 하는 총회입니다.

1. 응시자격

1) 교회가입
현재 교회 또는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2) 전도사 인턴(후보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남, 여 연령제한 없음)
3) 전도사 임명
신학대학(B.A), 신학대학원(M.A, M.Div) 이수자 및 졸업(예정)자
4) 목사 안수
① M,A, M.Div는 전도사 임명 후 1년 이상 사역한 자
② B.A는 전도사 임명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
(참고, 타 교단 신학대학 이수자는 본 총회에서 전도사 임명과 목사안수 후 별도의 교리과목 이수가 있습니다.)

2. 고시내용

1) 필기시험
①구약성경 ②신약성경 ③조직신학 ④교회사 ⑤헌법
2) 논문 : 에베소서 6장 12절
3) 설교 : 자율적으로 1편 제출(CD 또는 Tape로 30분 이내)
4) 면접 : 당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1) 고시 신청서(소정양식)
2) 지방회장 추천서(소정양식)
3) 추천서 2인(소정양식)
4) 신상명세서(소정양식)
5) 신학교 졸업 증명서(대학, 대학원)
6) 신학교 성적 증명서(대학, 대학원)
7) 신앙 및 소명 고백서
8) 사진 5매(여권사이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4. 제출기간 및 필기고시와 면접 일정

1) 제 출 기 간 : 2013년 9월 6일까지
2) 고시 및 면접 : 2013년 9월 16일
3) 고 시 장 소 : 하워드존슨호텔(플러톤)

5. 기타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정회원 가입 가능함(총재 조용기 목사)
- 봉사와 사회 참여(영산 조용기 자선 재단과 연계한 사회 구제 활동)
- 교제와 교류(정기모임 및 Net-Work 형성)한국-미국

6. 문의

석종규 목사 (714)318-9528 / 최명상 목사 (323)317-3749

순복음 수호총회 총회장 이종한 목사 부총회장 김진규 목사 이용인 목사 김두경 목사(고시위원장겸직) 총무 석종규 목사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52. 창조론의 기초(3) -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삼위일체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통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왜 우리를 만들었는지 등에 대한 기원이 창세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자료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연을 연구합니다(사실은 '자연'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성경이 모든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기본적인 뼈대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계 안에서 과학적인 관찰 결과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증거들을 평가하는 일은 진실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 한계 밖으로 혹은 밖에서 자료들을 무리하게 해석하여 진화론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으나 진화가 사실이 아니므로 진화론은 과학적인 모순들과 수수께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는 24시간의 6일인 창조주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어떻게 만들거나 빚어서 하나의 체계가 이루어져 잘 작동하는 우주를 만드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장의 마지막에는 그 창조가 "심히 좋았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기획자이시며 논리적이시므로 뒤죽박죽인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창조 과정 속에도 중요한 정보들이 녹아들어가 있으므로 그 순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일간의 창조

첫째 날(1:1-5): 하나님은 첫째 날 삼위일체의 성품을 우주에 확립해두셨습니다. 태초(time, 시간), 천(heavens, 공간), 그리고 지구(matter, 물질)인데 이 세 가지 물리적인 요소는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며, 동시에 창조되었고,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정의도 확립하셨습니다. 빛이 창조되어 지구를 비출 때 지구의 밝은 부분은 낮, 어두운 부분은 밤이라 하셨는데 낮과 밤이 바뀌었을 때 즉 지구가 자전했을 때 이것을 날(하루)이라고 정의하신 것입니다.

둘째 날(1:6-8): 맨 처음 창조된 지구는 두꺼운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이 물 사이에 공간이 생겨나게 하셨고 이 공간을 창공(sky)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창공은 첫째 날 창조하신 천(heavens)과는 다른 대기권이라 부릅니다. 공중의 물과 지구의 대기 성분들은 지구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필수적이고 완전했습니다. 창조 둘째 날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특별한 장소로 만들 것이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날(1:9-13):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구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를 이루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마른 땅 위에 하나님은 풀들과 채소와 각종 과일나무들 등 모든 식물들을 '종류대로(after its kind)' 창조하십니다. 이것들은 후에 창조될 동물들과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될 것입니다.

창조 3일째 꽃들 주위에는 아직 벌과 나비가 없었습니다. 꽃들이 수정되어 번식을 하려면 벌과 나비가 필요하므로 식물들이 창조되고 벌과 나비가 창조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될 것입니다.

넷째 날(1:14-19):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제외한 모든 천체들이 이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바로 이날 창조된 천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이 생각난 듯이 "또 별들을 만드시고"라는 말씀(16절)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크고 많은 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지구에 집중되어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지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다섯째 날(1:20-23): 하나님은 물속에 사는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늘을 나는 생물들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3일째에 이어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식물들과 달리 이 동물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맨 처음 창조된 생명(life)이 있는 창조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1:24-31): 하나님은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동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남자와 여자)은 자기 형상(in His own image)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고(subdue) 다른 창조물들을 다스리는(rule over) 책임을 주셨습니다.

창조가 끝나고

6일간의 창조가 끝났을 때 창조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습니다. 죄가 없었으므로 죽음도 없고, 가슴 아픈 일도 없고, 음식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들 즉 자기 형상들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사45:18).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읽을 때마다 평안과 풍성함 따뜻함 안정감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과정을 음미해보면 창조의 중심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지구를 창조하시고 부지런히 이 지구를 꾸미고 있습니다. 창조 4일째는 지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크고 많은 별들을 만들어 지구를 꾸미는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지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의 중심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지구보다도 우주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중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총 31절에서 32 번이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된 완벽한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의 법칙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물질의 절대법칙으로 알려진 열역학 제 1법칙은 물질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창조가 사실임을 보여주고, 열역학 제 2법칙은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질서해짐을 보여 줌으로써 역사의 시작이 완벽했음을 보여줍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완벽한 출발이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시작이 됩니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열역학 제 1법칙으로 창조가 사실임을 보여주고
열역학 제 2법칙은 완벽한 역사의 시작 보여줘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지혜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로 백성을 잘 돌보는 것이 바로 왕의 행복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결국 나라를 강건하게 하는 초석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라는 가치(Value)는 눈에 보이는 금, 은, 보화의 가치보다 더 크고 원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잠4:7)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지혜는 능력입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는 능력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자신의 능력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머리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 주변사람들이 모두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가 가진 좋은 머리와 재주가 장래를 유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종종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괴로워했지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몸부림 친 끝에 문득 시력을 잃기 전에 거리를 지나며 마주쳤던 시각장애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소리에 의지해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내 지식을 총동원해보자!"

청년은 그때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복잡하게 글씨를 읽어야 했던 기존의 방법들을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바꾸어 '문 타이프'(Moon Type)라는 선문자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가 바로 문 타이프 법을 활용해 점자성경을 편찬한 윌리엄문(William Moon)입니다. 윌리엄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 사람의 재주나 똑똑한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성공자로 남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한 베이컨(Francis Bacon)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의 말을 믿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탈진할 정도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잠9:10)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그 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 분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에 둘지어다"(잠22:17)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성공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은 명문대학과 좋은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분이 지으신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유익한 열매를 주고받는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이 진짜 행복한 성공자가 되는 길입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요.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예수 복음에서 온다"

남가주교협 광복절 제68주년기념 연합감사예배

광복절 제68주년 기념 연합감사예배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회장 진유철 목사)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박효우 목사(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개회선언과 양두석 집사(나성순복음교회 기드온성가대 지휘자)의 선창으로 모인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애국가를 불렀으며, 그레이스설 집사(나성순복음교회 솔로이스트)가 미국국가를 불렀다. 이어 홍순헌 장로(남가주장로협의회 회장)가 기도를, 홍성관 목사(회계)가 성경봉독을, 나성순복음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했다. 이어 진유철 목사가 '해방의 은혜'(출 3:23-2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남가주교협 주최 광복절 제68주년 기념 연합 감사예배에서 교협회장 진유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진유철 목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고통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됐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성경은 너희가 애굽에서 놓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한다.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을 기념하고 대대로 지키라고 한다. 수천 년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행사 지키고 하나님 은혜를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역사와 광복의 은혜를 자녀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들의 배고프고 힘든 시절을 교훈으로 삼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주권을 잃어버려 종의 신세가 되어 우리말과 우리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았다. 160만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3백만이 징용되었고 20만 젊은 여인들이 위안부로 끌려가 수모를 당했다. 고통당하고 힘없던 민족이 우리민족이었고 우리 조상들이었다. 그런 민족에게 마치 고통당하고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을 건져주었듯이 우리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광복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어둠가운데 빛으로 건져내시는 예수의 복음으로 진정한 광복을 체험한 민족답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전파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남가주교협 부회장들의 인도로 특별기도회로 이어져 황의정 목사가 '조국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김성민 목사가 '미국의 신앙부흥과 영적각성을 위하여', 지윤성 목사가 '이민교회의 부흥과 동포사회를 위하여', 정우성 목사가 '동포사회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뜨겁게 기도를 했다.

이날 예배는 홍영환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회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는 ATS정회원가입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인 기독대학 최초 ATS 정회원 인준

월드미션대, 미국 주류신학교와 학점교류 가능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송정명 박사)는 지난 8일 대학원 과정에 대한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신학대학원협의회)의 정회원 인준을 취득했다. ABHE와 TRACS에 이어 ATS의 정회원 인준까지 받음으로써 WMU는 학부와 대학원 전체에 걸쳐 미 교육부 산하 인준기관의 정회원 인가를 모두 받은 최초의 한국계 기독교 대학교가 됐다.

송정명 총장은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ATS의 6명의 실사팀이 학교를 방문해 WMU가 ATS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했었고, 3개월쯤 지난 8월 8일 ATS 정회원 가입 인준이 됐다. 이는 WMU가 ATS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본교가 주류 신학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본교는 그동안 정회원 후보자격 학교로 타 학교와의 학점교류 및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인준으로 인해 학점교류는 물론 석사과정 이수 후 상급학교로 진학이 가능해졌다. ABHE와 TRACS 등 미국내 신학교 인가기관에서는 준회원 혹은 정회원후보자격 학교들이 정회원 학교들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 학생들이 해당 인가기관의 상급학교 진학 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지만 ATS는 정회원과 정회원후보, 그리고 준회원 간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 정회원 후보자격을 갖췄어도 정회원학교로 진학할 수 없었다.

신선묵 교수는 "이번일로 인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유익이 생겼다. 첫째는 본교가 재정, 교육 등 ATS의 기준에 부합하게 된 것, 둘째 타 학교와의 학점교류로 인한 학점인정, 셋째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학위 공부시 ATS 정회원 학교에 진학이 가능하게 된것 등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WMU는 270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학위과정은 목회학박사과정, 신학석사, 기독교 상담학석사, 음악석사, 목회학 석사 등 대학원 과정이, 학부과정은 성서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음악과 등이 있다. 학교 측은 WMU가 영어권 학생유치를 위해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영어트랙을 준비 중에 있다.

임성진 부총장은 "많은 젊은 학생들이 영어권이어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본교의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번에 ATS정회원이 된 이상 영어강의를 개설해 영어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WMU는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학박사과정(D.Miss.) 개설도 준비 중에 있다.

본교는 오는 9월 7일(토) 오후 6시 강당에서 교계지도자들과 언론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ATS정회원 인준감사예배를 갖는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예비역기독장교회가 주최한 8.15 광복절 기념예배에서 김회창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장교회 8.15광복절 기념예배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장교회(회장 장석윤 장로, 육사11기 전 육사교수) 8.15광복절 기념예배가 미주복음방송국 4층 공개홀에서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예배는 본회 직전 회장 김회창 목사(말씀새로운교회 담임)가 '회복하는 신앙인'(마17:9-20)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이 패역한 세대에게 믿음을 빼앗겨 방랑인, 방탕인, 망명인 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팽개치게 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신앙과 나라를 지키는 기독장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회장 백형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기념예배는 증경회장단 대표인 원태어 장로(해군 제독)가 기도를 했으며 지도목사인 이기홍 목사의 축도로 이어지고 애국가와 광복의 노래 제창으로 끝났다.

본회는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6시30분에 모임을 갖고 있다. 연락은 장석윤 회장(818-905-9061)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남가주한국기독장로회〉

남가주장로성가단과 사모합창단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남가주장로성가단 제 20회 정기연주회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최대현 장로) 제 20회 정기연주회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를 주제로 18일 오후 7시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최대현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년의 찬양사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과 시간에 구원의 찬송, 기쁨과 소망의 찬송을 올려드렸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지난 20년 찬양의 분수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뜻 깊은 20주년 행사를 월트디즈니 홀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했다.

연주회는 최대현 장로 환영사, 최경환 목사(시온성결교회 담임) 말씀과 기도, 남가주장로성가단의 단가합창으로 시작됐다. 최 목사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함으로 옥문이 열리지 않았는가? 이제 남가주장로성가단은 20세의 성년이 됐다. 더욱 더 아름다운 찬양을 올릴 것이며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밤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르는 찬양으로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밤이 되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남가주장로성가단은 '영광을 높이신 주께, 거룩하시다, 영광' 등의 곡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남성중창단이 '목자되신 주님, 주의 이름 높이세' 등을 불렀다.

이번 연주회에는 한국 부산장로성가단이 대거 참여해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깨뜨린 옥합, 주의 이름이 크시고 영화롭도다' 등의 곡을 선사해 연주회를 한층 빛냈다. 이날 특별출연으로 소프라노 나유선씨가 '주기도문과 Ride on King Jesus'를 불렀으며 남가주장로성가단 사모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더욱 아름다운 조화를 이뤘다.

끝 곡으로 남가주와 부산장로성가단이 함께 무대를 장식,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과 천사의 합창'을 선사했으나 관객들의 뜨거운 앙코르요구로 '할렐루야'를 부르며 막을 내렸다. 본 연주회 지휘는 김원재씨, 반주 이하늘 씨와 석기향(오르간)씨가 맡았다.

〈이성자 기자〉

미주성결대학교 가을학기 입학설명회에서 학교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미주성결대학교 19일 입학설명회

2015년 ABHE 정회원 목표 등 발표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 입학설명회가 19일 오후 6시 JJ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만찬 및 입학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류종길 총장은 "2001년 개교이후 처음으로 지구촌 전체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학교로서 학교 근황을 보고하며 입학설명회를 하게 돼 기쁘다"며 "2015년에 ABHE 정회원이 되는 것, 목회학 박사과정의 주정부 BPPE 승인, ATS 준회원으로의 승인과 더불어 목회학박사과정 학생모집, 간호대(LVN과정과 RN과정)와 법예과(Pre Law)의 허가와 학생모집, 교사 확보 등의 사업들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부 예배는 황의정 목사(대학원장)의 사회로 시작, 권대웃 목사(사랑성결교회)가 기도, 본교 이사장 조종곤 목사(사우스베이선교교회)가 '바른복음, 다른 복음'(갈 :6-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수영 목사가 축도했다.

미주성결대학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BPPE인가 및 ABHE 정회원 후보자격을 갖췄으며 SEVIS I-20폼을 자체 발행한다. 학위과정으로는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M.C.C.), 선교학석사(M.M.), 신학사(B.Th.)등이 있다.

입학지원 절차는 세례 받고 중생의 체험과 소명감이 확고하면 기본자격을 갖추게 되며, 입학서류는 본교 소정양식을 홈페이지(

www.acui.us

)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전형방법으로는 서류심사, 면접 등이 있다.

▲문의: (323)643-0301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주최 제4회 대학생활 워크샵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오미숙 카운슬링 디렉터(사진왼쪽)와 폴윤 임상심리 상담가가 설명하고 있다

제4회 한인가정상담소 대학진학 워크숍

29일 저녁 6시부터 학생과 부모그룹으로 나눠 진행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는 대학진학을 앞둔 청소년들 및 자녀의 대학진학을 앞둔 보모님들을 위하여 College Readness, 대학진학 워크숍을 8월 29일(목)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개최한다. 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 입학을 예정으로 하는 졸업생들과 그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는 올해로 4번째로 열리며, 강사로는 임상심리학 박사이자 교육학 박사인 조나단강 박사.

이번 워크숍은 학생그룹과 학부모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학생그룹은 영어로, 학부모 그룹은 한국어로 진행된다. 첫째 학생그룹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대해 알아야 할 전반적인 것들을 알려주며 토론형식으로 진행된다.

한인가정상담소 측은 이번 세미나를 실질적 대학생활에 맞추게 된 것은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대한 것만 생각하다, 막상 진학을 하게 된 후의 삶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학진학 후 75%의 학생들이 우울증, 대학생활 및 장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 멘탈이슈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며, 18-24세 중 25%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다. 그중 64%가 대학생활을 포기하게 되며,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40%는 학교나 기관 등에 도움을 받기를 꺼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의 경우 자녀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때 대학생활에 충실하라는 충고만 할뿐 자녀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자녀 입장에서 볼 때 없다고 느끼게 된다. 결국 자녀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학업을 중단하기도 하고 가장 심한 경우 자살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가정상담소는 대학진학을 준비 중이거나 진학을 앞둔 학생들 외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되며 회비는 없다. 참가자는 선착순 30가정으로 제한한다.

▲문의: (213)389-6755(Ext.111), (213)389-6755(Ext.104)

〈박준호 기자〉

미주평안교회 담임 송정명 목사 은퇴 및 출판기념 감사음악회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고있다

송정명 목사 은퇴 출판기념 감사 음악회

25일 오후 3시 미주평안교회, 예배 후 음악회

미주평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송정명 목사의 은퇴 및 그의 목회일생을 담은 '우리함께 걸어 행복한 그 길' 출판기념 감사 음악회가 25일(주) 오후 3시 미주평안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송정명 목사는 "이민목회를 37년간 해오면서 목회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책에 담았다. 이 책에는 어떤 자세로 이민자들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썼다"며 "이민목회만 했기에 이민목회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주관이 들어있는 글들이기에 이 책을 보는 목회자 중에는 내생각과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임직식 등 행사 때 화환을 받지 않고 장학금으로 내달라고 한다. 이러한 목회철학은 나의 장례식 때도 예외는 될 수 없다. 장례식 때 조화를 보내지 말라고 유서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저서는 글로벌미션의 지원으로 출판됐으며 저서는 그의 은퇴예배 이후부터는 선교를 위한 선교기금마련을 위해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오후 3시 은퇴예배로 시작된다. 은퇴예배 후에는 감사음악회로 이어지게 되며 월드미션대학교 찬양밴드, 월드미션대학교 중창단, 미주평안교회 찬양대, 오페라캘리포니아 소년소녀 합창단. 글로벌메시아 여성합창단 등이 출연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하기 야유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총동문회(회장 손한권 목사) 하기 야유회가 오는 26일(월) 필라델피아 한성기도원에서 열린다. 당일 오전 8시30분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에서 버스가 출발한다. 수영과 골프도 할 수 있다. 회비는 일인당 20달러.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347)753-4551, (929)400-1606

퀸즈장로교회 2013년 제2기 성경아카데미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2013년 제2기 성경아카데미가 9월 15일부터 8주간에 걸쳐 매주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열린다. △구약의 맥잡기(강사 오건 목사) △신약 맥잡기(강사 조성윤 목사) △꼭 알아야 할 성경의 핵심진리(강사 안재현 목사) 등 3강의로 이뤄진다.

▲문의: (718)886-4040

뉴욕장로성가단 제 9회 정기연주회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손성대, 지휘 이정진) 제 9회 정기연주회가 9월 8일(주) 오후 6시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기독교TV(KCTS, 사장 박용기 장로) 후원을 위한 음악회로 열린다. 메조소프라노 유경화, 바리톤 이요한이 특별출연한다.

▲문의: sungdshon@gmail.com

KAPC 뉴욕노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허상회 목사)가 주최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리벤젤 수양관에서 열렸다. "Radical obedience"라는 주제로 중고등부 75명과 20여명의 교사 및 전도사들이 참석했다. 강사는 존 오 목사(은혜언약장로교회 담임). 수련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사제공: 뉴욕노회〉

필라교협, 8.15광복절 기념예배

복음화대회 일정 및 준비 발표

대필라델피아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등배 목서)가 지난 11일 오후 6시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에서광복절 기념예배를 드렸다.

광복절 기념예배는 매년 필라 한인회(회장 송중근)와 교협이 공동으로 드렸었는데 올해는 한인회 행정 착오로 협의하지 못하고 한인회 자체로 주일날 거행하게 된 것. 이에 대해 한인회는 사과와 아울러 내년부터는 공동 협의하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예배는 전영현 목사(조통분과 위원장) 사회로 황준석 목사(증경회장)가 시146:1-10을 본문으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황 목사는 굴곡 많은 고국의 정치 역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 된 것을 잊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한인동포 사회를 위해 서장석 장로(교협 부회장), △대한민국을 위해 강승호 목사(증경회장), △미국을 위하여 이광영 목사(실행위원) 제목의 합심 기도가 이어졌다.

이날 예배는 박등배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김선훈 목사(총무)가 교협 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필라복음화대회: 9월 27일(금) 오후 8시, 28일(토) 오후 8시, 29일(주) 오후 6시, 장소 영생장로교회, 교협주관 장학생 20명 선발식 △목회자 세미나: 28일(토) 오전 10시 △복음화 대회를 위한 영적 각성 기도회: 9월 8일(주) 6시 서머나 교회, 15일(주) 오후 6시 세천교회, 9월 22일(주) 오후 6시 새한교회.

〈기사제공: 필라교협〉

김수익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큰 꿈과 소망 주신다"

뉴저지순복음영산교회 김수익 담임목사 취임예배

뉴저지순복음영산교회가 새 담임 김수익 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지난 18일 열린 취임예배에서 김수익 목사는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큰 꿈과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안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주변에서 귀한 분들이 오셔서 축복해주심에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축복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고 성실히 목회에 임하겠다"고 취임인사를 했다.

김수익 목사는 현재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부총회장으로 베데스다대학교 신학학사 과정과 M.Div 과정을 거쳐 오랄 로버츠 대학교에서 목회학박사를 받았다.

예배는 김면진 목사(보스톤순복음교회) 사회로 박헌영 목사(퀸즈순복음교회) 기도, 구순연 집사(국악찬양복음가수) 특송,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말씀선포, 이은혜 목사(뉴저지순복음안디옥교회) 헌금기도, 양승호 목사(뉴욕순복음연합교회) 취임식 인도, 이희선 목사(뉴욕새언약교회) 축사, 김수익 목사 광고, 강승호 목사(순복음중앙교회)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만호 목사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행9:31)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성경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평안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주님만 경외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나의 중심이 잡히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뉴저지영산교회가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한다면 불같은 성령이 취임하시는 목사님과 교인들과 권사, 장로 제직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익 목사는 교단활동으로는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중재위원장, 복지위원장, 중복부 지방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역교회에서는 중북부 오마하 교역자협의회장을 지냈다. 담임목회는 오마하순복음교회에서 95년부터 18년간 담임으로 재직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설명회에서 이광모, 이계훈, 손성대, 이보춘, 정권식, 김영호 장로(왼쪽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26일 뉴욕한인장로연합회 다민족선교대회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이보춘 장로)가 오는 25일(주) 오후 6시 후러싱제일교회(담임 장동일 목사)에서 '대뉴욕 다민족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장로연합회는 14일 정오에 설명회를 열고 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다.

준비위원장 정권식 장로는 "2010년 11월 창립된 장로연합회는 매달 한번씩 모여 예배와 기도모임을 가져왔지만 구체적인 활동이 부족했다. 이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소수 다민족을 위한 선교대회를 열어 그들을 구원하고 세계복음화에 앞장서기 위해 대회를 열게 됐다"고 개최 이유를 밝히고 "첫 대회이기에 미숙한 점이 많겠지만 시작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교대회는 1부 예배, 2부 다민족 선교 찬양축제, 3부 만찬과 친교로 진행된다. 1부 예배에서는 김종훈 목사(뉴욕교협 회장)가 말씀을 전한다. 2부 찬양의 순서에는 한인을 비롯해 히스패닉과 흑인 등이 나와 찬양을 한다. 3부는 만찬이 제공된다.

장로연합회측은 선교대회에 장로 중심의 한인들과 거리의 히스패닉 1일 노동자 등 다민족 4-5백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대회를 앞두고 다국어로 된 광고지를 만들어 가두홍보에도 나선다.

행사를 준비하는 이광모 총무는 "초대 되는 한인교회 장로님들은 선교 차원에서 50불(부부동반) 후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은 무료다. 행사비용이 총 2만불인데 특히 광고주를 찾고 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한다" 말했다.

〈유원정 기자〉

KCBN 라디오수신기 300대 무료 보급

이사장 윤세웅 목사 기증 잔여분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 문석진 목사)이 지난 6월 공개모금방송 기간에 이사장 윤세웅 목사가 기증한 라디오수신기 500대 중 300대를 무료 보급한다. 200대는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참석자들에게 보급된 바 있다.

문석진 사장은 "공개 모금방송은 단순히 운영비가 모자라 구걸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청취자와 교회 그리고 크리스천기업 등 전파선교사들이 방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뉴욕일원의 유일한 선교 복음 방송인 KCBN을 굳건하게 세울 것을 간절히 희망하며 드리는 씨앗이었으며, 과부의 두렙돈 같이 정성이 담긴, 옥합을 깨뜨린 향기가 가득한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필요한 라디오 수신기 수량을 전화(718-463-1700) 또는 이메일(kcbnny@hotmail.com)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KCBN은 지난 6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모금방송에서는 163건 45,635달러가 약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기사제공; KCBN〉

"목회자 사모의 리더십과 상한 감정의 치유"

뉴저지교협 '사모세미나' 성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상천 목사)가 주최하고 브니엘상담대학원(학장: 홍상설 목사)이 주관한 사모세미나가 지난 19일 브니엘신학대학원 뉴저지 캠퍼스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열렸다.

회원교회 10여명의 사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회자 사모의 리더십과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주제로 강사는 김에스더 목사, 김경실 박사, 이효연 박사, 박효숙 박사가 "마음열기 영성과 치유", "성격발달과 인간이해", "미술치료를 통한 상한 감정의 치유와 회복", "목회자 사모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나(사모)는 누구인가'를 재발견하고, 목회자의 내조자로서 완숙된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섬기는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부흥되며, 목회자 가정이 더욱 건강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기사제공:; 뉴저지교협〉

김경실 박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4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4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화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5) **리스팅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료광고안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료리스팅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남가주교협·OC교협 공동주관 장학금 수여식 성황

차세대리더 98명에 7만9천달러 지급

남가주교협과 OC교협이 공동주관한 차세대리더 장학금 수여식을 마친후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가 공동 주관한 차세대리더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18일 오후 5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2013 차세대 리더 장학생은 남가주교협에서 고교생 10명, 대학생 34명 등 계44명, OC교협에서 고교생 28명 대학생 26명 계54명 모두 총 98명이 선발됐으며 이들에게 총 79,000달러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남가주교협에서는 나성순복음교회 5천 달러를 비롯해 30개 교회와 단체에서 4만1,700달러를 모았으며, OC교협에서는 은혜한인교회 1만 달러를 비롯해 11개 교회와 단체에서 4만 달러를 모았다.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남가주교협 부회장 황의정 목사의 대표기도, OC교협회장 민경엽 목사의 설교("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딤후3:13-15), OC교협 총무 송규식 목사의 광고, OC부회장 이우호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장학금수여식은 남가주교협 총무 양경선 목사의 경과보고, 나성순복음교회 정재혁 지휘자, 우성영 자매 축하송, 코로나감사한인교회 최한솔 학생, 남가주헤브론교회 샘 김 학생의 간증시간이 있었으며 백스패밀리의 축하연주가 있었다.

민경엽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세상은 불공평해 보인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에 사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일꾼을 찾고 계신다. 오늘 장학금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세상이 변화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유철 목사는 '한인사회 차세대 리더들에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 감사하다'면서 '여러분들이 장차 한인사회는 물론 미국과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지도자가 돼달라'고 말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을 위해 남가주교협은 총 120명이 신청해 대학생 34명과 고등학생 10명 등 44명(타인종 2명 포함), OC교협은 140명이 신청해 대학생 26명과 고등학생 28명 등 53명(타인종 3명 포함)이 장학금을 받았다.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헬스케어미니스트리 한인지원센터 오픈식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플랜으로 인정

크리스천 헬스케어 미니스트리 한인지원센터 오픈식

크리스천 헬스케어 미니스트리 한인지원센터(CHM디렉터 스티븐 정) 오픈식이 16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한인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한인회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오하이오 주 바버튼 시에 본사가 있는 크리스천헬스케어(CEO 하워드 러셀 목사)는 지난 1981년에 설립된 단체이며, 한인지원센터는 2012년에 설립됐다. 스티븐정 디렉터는 "크리스천 헬스케어는 보험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티나정 사무장은 "CHM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오바마케어가 지정한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CHM은 비영리 의료사역단체로 참여하는 크리스천들이 서로의 의료비를 자발적으로 분담하는 의료비 공동분담 사역단체이다. CHM은 501(C)(3)로 등록된 비영리단체로 지난 20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서로 지원해왔다. CHM은 지난 30년 넘게 의료사역을 해왔으며 10만 명 이상을 섬겨왔다. CHM의 사역은 갈라디아서 6:2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말씀에 근거해 진행해왔다. 또한 세계 선교사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CHM의 특징은 △일반보험보다 저렴한 가격 △2014년 오바마 의료개혁법의 플랜으로 인정 △가입혜택이 신청다음날로 시작가능 △훌륭한 분만혜택 제공 △의사나 병원을 본인이 선택 △가입시 피검사나 건강검사 없음 △지병이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입가능 △한국의 병원 사용가능 △대형병원 이용시 서비스 제공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가입가능 △개인과 그룹 모두 가입가능 등이다.

CHM의 가입비용은 500달러이며, 건강검진을 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수술까지 지원이 된다. 그러나 임신 분만의 경우 임신하기 전에 가입이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혼여성의 출산 및 임신중절수술시 혜택을 받지 못한다.

CHM의 프로그램은 골드플랜, 실버플랜, 브론즈 플랜 등이 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때, 치료받은 후 청구된 계산서를 CHM에 보내면 CHM이 가입자 이름으로 수표를 작성, 가입자에게 보내게 되고, 가입자는 CHM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해당병원에 보내면 된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CHM에서 병원으로 직접 수표를 발송할 수 있다. 단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담임목회자나 교회 관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한편 크리스천헬스케어 가입에 대한 설명회를 원하는 교회나 교계단체는 CHM 한인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213)444-1599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LA기윤실 '사회봉사상' 공모

로스앤젤레스 기독교윤리실천운동(LA기윤실 공동대표 허성규, 홍진관)에서 '제2회 LA 기윤실 사회봉사상'을 공모, 시상한다. 심사기준은 △사업의지부문(사회봉사에 대한 비전과 실천의지 심사) △사업기여도부문(지역사회에의 끼친 영향력 심사) △사업운영부문(운영의 건강성, 합리성, 전문성) 등이다. 심사 신청기간은 9월 27일(금)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일에 열심인 교회, 단체, 개인으로 홈페이지(www.lacem.org)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cem_la@yahoo.com)로 보내면 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7일(목) LA기윤실 건강교회 포럼에서 기념상패와 1,000달러의 시상금을 전달한다.

▲문의: (213)387-1207

미주갈멜산기도원 정기집회

미주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에서 8월과 9월 정기집회를 8월 22일(목)부터 9월 12일(목)까지 3주간동안 진행한다. 단 매 주일은 성회가 없으며 시간은 오후 7시30분, 새벽 5시30분, 오전 10시30분에 각각 열린다. 강사는 조성근 목사.

▲문의: (213)382-1450

Seeds of Worship 정기공연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년소녀 율동댄스 뮤지컬 합창단 Seeds of Worship(총 디렉터 에스더박) 2013년 정기공연이 8월 23일 오후 7시 나침반교회, 9월 14일(토) 오전 10시 효사랑선교회, 9월 27일(금) 오후 7시 토렌스장로교회에서 각각 열린다.

▲문의: (714)904-8434

제108회 횃불 중보 기도회

횃불선교센터기도원(원장 정희욱 목사)이 주최하는 제108회 횃불 중보 기도회가 31일(토)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메일: Jungtmc@gmail.com

▲문의: (626)419-0637, (760)835-0363

목양장로사역컨퍼런스 설명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 10월 8-9일

나성영락교회서, 강사 최홍준 목사 등 4명

국제목양사역원(대표 최홍준 목사)는 13일 오전 11시30분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목양장로 사역컨퍼런스 설명회를 가졌다.

오는 10월 8일(화)-9일(수) 양일간 나성영락교회에서 개최되는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는 최홍준 목사(국제목양사역원 원장), 홍민기 목사(호산나교회 담임), 고현권 목사(얼바인 베델한인교회 부목사), 김명섭 목사(국제목양사역원 총괄) 등이 강사로 나서게 된다.

참가대상은 목사, 장로, 장로 택된 직분자, 침례교회 경우 안수집사, 권사로 등록기간은 10월 7일까지 선착순 120명이며 등록비는 120불이다.

최홍준 목사는 "목양장로사역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다. 많은 장로들과 목회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동일한 반응은 세미나를 통해 장로의 본질을 알게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많은 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장로의 개념이다. 대부분교회들이 목사와 장로는 대립관계 내지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와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목양장로시스템은 장로의 본질을 세우고 목사와 장로가 부모의 마음을 갖게 해 모든 교인들이 가족처럼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교회에서 목사는 목자, 장로는 양이라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장로역시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목자이며, 목양장로사역은 장로가 목회자와 함께 교인들을 목양하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949)751-8507

〈박준호 기자〉

남가주기독교원로목사회 건국 65주년 기념식 거행

남가주기독교원로목사회(회장 이기홍 목사)는 8.15 광복절 65주년을 기하여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념예배 및 건국 65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기사제공: 남가주기독교원로목사회〉

나노 기술의 놀라운 칼슘흡수
BONSTRONG
인제대학교 나노 공학부 공동 기술개발
Bonstrong 이 약속드리는 골다공증 없는 세상

INHIS Inc
POWERBOLIC USA
laboratores Inc
Made in U S A
동부: 737-570-3611
서부: 310-903-1792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예배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물티슈 판매
TOLL FREE: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TEL. 800.347.7057
워싱턴DC 지사 TEL. 800.228.2928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특전: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윌리엄캐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hilshire Blvd. #228, L.A., CA 90010

[핫이슈 점검] '십일조 안내면 교인 권리 자동중지?'

예장합동 "'교인될 수 없다'는 오해" 교단 안팎 논란에 헌법개정 어려울 듯

예장 합동 헌법전면개정위원회가 최근 '교인이 6개월간 출석 않고 십일조를 납부하지 않으면 교인 권리가 자동중지 된다'는 문구를 헌법에 삽입한 것과 관련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십일조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 속해 있다'(대상 29:14)는 신앙고백이다. 따라서 십일조는 '10분의 1이라는 부분이 아닌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신앙 표현이자 자발적 감사 표현이다.

◇십일조 의무조항 왜 넣었나=위원회는 십일조 의무조항을 헌법규칙 제2장 17조 '교인의 자격정지'에 넣은 목적이 이단 침투와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서기 한기승 목사는 "최근 교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6개월 이상 출석도 않고 십일조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도라며 갑자기 나타나 분쟁에 적극 개입해 분란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아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성도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헌법에 있던 '의무금' 조항을 '십일조'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목사는 "보통 십일조를 하지 않는 신천지 추수꾼들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에 잠입해 공동의회에 참석한다면 '산 옮기기'(신천지가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는 전략)는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라면서 "따라서 질병, 출장 등 특별한 사정 없이 6개월 이상 출석 않고 십일조도 안 하는 사람은 교인 권리인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는 게 위원회의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헌법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아'=그러나 위원회는 십일조 여부에 '교인 권리 중지'라는 포괄적 개념을 연결시켜 논란을 자초했다. 교인 권리에는 선거권,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봉사, 성찬 참여권까지 포함된다. 즉 '십일조를 납부하지 않으면 교인조차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이다. 문제의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오는 9월 98회 총회에서 안건이 받아들여져 140개 전국 노회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는 "위원회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십일조 헌금을 하지 않으면 마치 교인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해당 조항은 '교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당회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개정안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다 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 총회 때 결의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핵심문건으로 본 맞춤형 포교 전략...모든 것을 해부한다(2)

경영학 기법까지 활용 포교대상자 분석한 뒤 유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모략'(포교를 목적으로 상대를 속이는 것)은 태신자 카드 1장 작성하고 방치하다시피 하는 한국교회 전도법과는 차원이 다르다. 신천지는 경영학 기법인 'SWOT 분석'을 활용해 설문조사, 심리검사, 측정표, 관리일지 등을 총동원해 포교 대상자를 분석한 뒤 거짓 상황을 만들어 성경공부를 하자며 유인한다.

◇측정지로 포교 대상자 점수 매겨=신천지는 포교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한 뒤 세부 보고서를 작성한다. '섭외자'(포교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가 결정되면 3~5명이 머리를 맞대고 시나리오를 짠다. 적게는 2-3명, 많게는 수십 명이 '잎사귀'(바람잡이)가 돼 맞춤형 포교 전략에 착수한다.

신천지는 섭외자를 결정할 때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각 항목별 기준표' '합당한 자 선정 기준표' '대상자 분석 시트'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다음 단계인 맞춤형 전략과 복음방 교육을 실시한다.

신천지는 '각 항목별 기준표'로 섭외자의 성향을 예측한다. 기준표에는 신앙유형(율법·사랑·열심·지식·부자·기도·은사), 신앙연수(모태·유년기·20세 이후 시작), 교회 크기(대·소), 교회 내 직책(유·무), 가족관계(좋음·나쁨), 가족신앙(좋음·좋지 않음), 표정(적당함·잘 웃음·무표정·눈 피함·화난 듯) 등 60여개 세부 특징이 들어 있다. 특히 교단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고신, 가톨릭으로 분류하는데 예장 고신의 경우 '구원관이 아주 강하며, 말씀공부하는 것을 좋아함. 자기네 교단만 같이 모인다'는 식으로 특징을 기술했다.

◇가짜 간증까지 만드는 사이비 집단=섭외자가 정해지면 신천지는 허위 간증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심이 깊다는 것을 과시한다(신앙우위 선점). 이를 위해 '가짜 간증 만들기' 교재를 이용하는데 간증의 내용에 신앙경력,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역 동기(꿈·계시·응답·서원), 말씀을 깨달은 후 기쁨 등을 넣어야 한다고 소개돼 있다.

신천지는 복음방 성경공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보조 도구도 사용한다. '밭갈이' '입막음' '이단경계심 낮추기' '말씀의 중요성 심기' 등의 교재인데 복음방 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도구다. '밭갈이' 교재는 섭외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상담 교본이며, '입막음'과 '이단경계심 낮추기' 교재는 성경공부를 비밀로 하고 이단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데 활용된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신현욱 구리상담소장은 "신천지의 모략이 워낙 치밀하기 때문에 누구나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교인이 신천지에 빠졌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전국 교회가 국민일보에 소개된 복음방 커리큘럼과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숙지시킨다면 적잖은 예방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감 '하디 1903 성령한국' 기도성회

"110년전 한민족에 주셨던 성령을 다시 한번"

원산대부흥운동을 촉발시킨 하디 선교사의 회개사건 110주년을 맞아 '하디 1903 성령한국' 기도성회가 18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성회에 참석한 1만 8000여 목회자와 성도들은 회개를 통해 '뜨거운 감리교회, 새로운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구했다.

이번 성회는 5년여 간 내홍을 겪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새 감독회장을 선출한 뒤 여는 첫 대규모 집회로 한국 감리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도들은 집회 시작 2시간 전부터 체조경기장에 입장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1.5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운 날씨였지만 오후 3시쯤 1~2층 좌석이 가득 찼고, 집회가 시작됐을 때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성회는 오후 4시30분 최이우 서울 종교교회 목사의 개회기도와 함께 시작됐다. 최 목사는 "110년 전 하디 선교사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부어달라"며 "오직 은혜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호세아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 감독회장은 "세상이 한국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감리교회는 지난 5년간 아픔을 겪었다"며 "(감독회장)선거를 치렀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고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여호와께로, 기도의 골방으로 돌아가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며 "욕심과 반목, 이기심과 불순종의 죄에 대해 가슴으로부터 회개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성도들은 30여분간 개인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회개기도를 했다. 이어 각 연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강단에 올라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성도들은 옆사람의 손을 잡거나 두 손을 든 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눈물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았다.

성회에 참석한 이선자(60·여) 권사는 "그동안 회개와 기도의 중요성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 오늘 많이 회개했다"며 "이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말했다. C국 선교사인 이상수(37) 목사는 "우리 한국교회는 거룩하게 택함을 받았다는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며 "회개를 통해 감리교회가 보다 겸손하고 진실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대회장 김영헌 서울연회 감독은 "오늘 성회의 목적은 감리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방향과 체질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본질적인 교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병수 충북연회 감독은 "이번 성회에 이어 내년 6월 중부권 선교대회까지 회개의 운동이 지속될 것"이라며 "감리교가 5년의 파행을 겪었으니, 이제 10년간 회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도·복음 열정...6만 청소년 서울광장 메웠다

'2013 라이즈업 코리아대회' 10주년

라이즈업무브먼트(대표 이동현 목사)와 국민일보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독 청소년들의 부흥축제 '2013 라이즈업코리아 대회'가 18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광장을 가득 메운 6만여 청소년들(주최측 추산)은 더위 속에서도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르짖었다. 대회는 올해로 10년째다.

정성진 거룩한빛광성교회 목사는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청소년이여 일어나라"며 개회를 선언했다. 정 목사는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이라며 "한국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영적 리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라이즈업워십밴드가 '좋으신 하나님' '보게 되리라' '오직 예수' 등의 찬양을 인도하면서 대회의 열기는 고조됐다.

이동현 목사는 모든 어려움의 궁극적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성경은 분명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호 오륜교회 목사는 "기독 청소년이 바로 서야 한국교회가 바로 선다"는 격려의 말과 함께 비전을 선포했다.

그룹 울랄라세션이 '한사람' '거름'을 노래했고, 멤버중 박광선씨는 자신이 체험한 신앙을 고백했다. 작은 교회 전도대상자를 위한 선물 및 기념품 증정 프로젝트인 '투게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대회 시작 전에는 20여 교회 중·고등부와 학교 기독 동아리 회원들이 찬양과 워십 등으로 참여한 '라이즈업 청소년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날 기도와 찬양의 열정을 불태운 청소년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광장에 울려 퍼진 통성기도를 통해 한국교회와 가정, 학교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길 간구했다.

강릉에서 버스를 타고 왔다는 고교 3학년 박주경(18·강릉소망감리교회)양은 "내일 개학이지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참석했다"고 말했다. 오륜교회 청년 이창민(30·자영업)씨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 심장이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연동교회 청년들은 '간추린 100분 성경'이란 영한판 설교집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다. 이날 같은 시간 라이즈업무브먼트 전국 11개 지부, 20여 곳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이동현 목사는 "10년째 대회가 지속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이라며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대회가 열리는 등 라이즈업코리아는 학교와 가정, 교회의 회복과 민족의 부흥을 위해 순수하게 부르짖는 국제적 기도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판 도가니의 최씨 선교사 아니다"

'인도판 도가니' 사건으로 인터넷을 나돌고 있는 한국인 최모(71)씨는 알려진 것과 달리 선교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사건은 인도 유력 언론매체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지난 달 25일 "인도 남부 뱅갈로르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한국인 선교사 최씨가 소녀들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8살이 되던 해 이 고아원에 맡겨진 까말라(가명)는 "13살 때부터 최씨의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심지어 직원을 시켜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현재 최씨는 경찰의 출두 명령을 받은 뒤 북인도 지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20일 "최씨는 한 교단 노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잠시 선교사로 활동했지만 재정 비리 등 불미스러운 일로 곧 자격을 박탈당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KWMA에 따르면 최씨는 1994년 6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경청노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았으나 2001년 7월 교회 건축 관련 재정 비리로 문제로 선교사 신분을 잃었다.

통상 해외 선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단이나 노회, 선교단체 등에서 정식으로 파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 씨의 경우 이미 12년 전에 선교사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 KWMA의 설명이다. 특히 선교사직에서 물러나면 즉시 귀국해야 함에도 최 씨는 현지에 머물면서 마치 선교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활동했다는 것이다.

KWMA 한정국 사무총장은 "최씨는 이미 선교사 직을 잃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아니지만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책임도 크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는 선교사 모집 단계부터 훈련, 파송 절차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Tel.(062)523-9419, Fax.(062)522-4834
500-170 광고광역시 북구 운암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03)3208-8491~5, Fax.(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82)2-440-9000, Fax.(9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02)2645-6567~9, Fax.(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22-3 (158-053)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82)51-740-4500, 4556~8, Fax.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선교 편지

아르헨티나

CDP Open 행사를 마치고

아르헨티나에서 비레이 델 피노 지역의 002센터를 개설하고 CDP(Child Development Program) 사역을 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아르헨티나에서 현지인 선교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가정들의 이혼, 십대 청소년들의 혼전동거, 마약과 알코올 중독, 강도, 절도, 살인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현지 가정들의 상황을 접하면서, 이 땅의 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케 할 수 있는가? 수없이 고민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 마딴사 지역의 비레이 델 피노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은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체성을 갖게 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케 하여 지역 사회의 일꾼으로 세워가는데 목적을 삼고, 4가지의 영역(영적, 육체적, 교육적, 사회, 정서적)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CDP 사역 오픈

저희는 지난 8월 10일에 CDP 사역 오픈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마다 저희보다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저의 마음에 강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에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놋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의 하나님인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방인 고레스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며 또한 그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어린이 사역을 오픈하면서 지역 청소년 전도집회와 함께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500명을 초청하기로 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선물을 600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600개의 선물보다 더 많은 7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오픈 예배와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저희가 모든 아이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다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어린이 사역을 통해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어린이들의 눈망울에 눈물이 맺히고, 굳어진 얼굴이 펴지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그늘진 얼굴에 웃음꽃이 함빡 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의 작은 섬김과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열악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사역은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용기를 심어주고 또한 꿈과 비전을 갖고 건강한 어린이들로 성장케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중보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장영호 선교사〉

▪ 기도제목

아래의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1. 현지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운영(책장, 도서, 신앙서적)
2. 어린이들의 방과후 교육을 지원해 주실 분(영어, 수학, 국어 선생)
3. 어린이 사역을 위한 정기 적인 후원자(식량, 물질)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5면에서 계속〉

그 이후로 동성애자들을 이성애자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기관들은 오늘날까지 계속 심하게 공격을 받아왔으며, 그들의 공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Exodus International"이다.

결국 2012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새로운 반대 법안에 의해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뀌도록 돕는 기독교 상담들은 거의 더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결론: 동성애자들은 유전적도, 선천적도 아니다. 치유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인간과 인류를 창조하신 성경 말씀에는 더 더욱 확실하게 적혀있다. 하나님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을 결혼시키시고, 그들의 한몸된 연합을 통해 가정을 만드셔서 또 다른 생명을 탄생케 함으로, 인류를 아름답게 번성케 하시는 것이 창조주의 창조 질서며 우리 몸 구성의 법칙이라는 것.

그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수많은 시간과 역사를 통해 거듭 확인되는 사실들은 거의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아픈 환경적(가정의 불화, 아버지부재, 강한엄마, 여성들의 어릴 적 잘못된 성경험 등)인 이유들로 특별히, 동성 성경험을 한 어린이가 일찍 고치지 못할 경우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잘못 믿게되는 믿음이 생겨나며 동성애자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의 잘못된 성적 행위는 매우 안타까운 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가 병이 생길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는 병, 죽을 수밖에 없는 병…. 동성애자들은 고칠 수 있는 병이다. 그들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크리스천들을 통해 알게 된다면 그들이 모르던 인생의 소망과 환하고 높은 인생에 대한 진정한 목표까지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잘못된 성적성향과 정당성을 고집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바꾸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임무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더 자세한 역사적 내용, 그들의 Agenda와 전략, 그들의 목적,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것은 TVNEXT.org에서 볼 수 있다.

방지일 칼럼 (4)

"본대로 들은 대로"

총동원

근자엔 총동원 주일을 정하여 전 교인을 동원시켜 대대적으로 전도열을 가하는 일이 꽤 보람직하다. 일 년 계획 중에 미리 제정하여 몇 달 전부터 온 교인에게 알게 하여 한사람 이상 미리 작정하고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하다가 그 주일에 그를 인도하자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정한 한 분을 위해 중점으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 그 본인은 알 수도 없겠으나 나는 주 앞에서 그를 내 전 신경을 다 동원하여 주목하여 기도한다. 그 주목하여 기도한 비례로 정한 그 주일 전주간이나 며칠 전부터 그를 찾기 시작한다. 내 논리가 좋아서 그를 설복시키는 일이 아니라 기도의 축적으로 그를 대하는 내 얼굴부터가 그의 감각을 사로잡고 만다. 한마디의 말로 과녁을 명중시킴이 된다.

어떤 교회에선 많은 투자도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 투자의 액수가 문제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친구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비용을 관계하리요만은 기도 없는 그런 수단은 다 인위적이라 마지못해서 한두 번 나올 수는 있겠으나 결실되지 못한다. 형식에 부응하여 내용도 있게 해야 하는데 한국교회의 지나친 물량주의에 가라지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해본다.

총동원엔 우선 우리의 감각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기도가 유일한 투자요 가장 적중한 투자인데 이 기도는 전 감각의 총동원된 기도이어야 한다. 우리는 육적으로 오관이라 다섯 감각이 있어 이 감각으로 지식을 수입한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다섯 감각이다. 흔히 감각을 대표하여 시청각을 운운하나 이는 모든 감각의 대표로 하는 말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앉은뱅이 된 이를 일으킬 때에 '주목하여 가로되'(행3:6)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간적으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눈으로 그를 주목한 것은 베드로, 요한이 전 감각을 동원하여 그를 사로잡은 것이다. 옛글에 정신일도((精神一到) 하사불성(何事不成)이란 말도 여기 해당한다.

나는 목사님들과 같이(중국서 돌아와서) 성경을 같이 읽는 일을 오늘까지도 매 월요일 계속한다. 성경을 보되 감각을 동원해서 보는데 그 맛이 너무 꿀맛이다. 무어라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처음 시작할 때 모 목사님은 한번 모이는데 몇 번씩이나 "목사님 반짝합니다"의 말을 연발하시곤 했다. 몇 번 그대로 지나갔다. 그러다 어느 날 또 그 말을 하시기에 "목사님 그 반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반짝이 청각의 반짝인지 미각의 반짝인지 한 감각의 반짝은 안됩니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모든 감각이 다 동원되어 말씀을 받아야 한다.

집회 때 말씀선포 후에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듣는다. 그 말의 맥이 내게는 귓맛이 좋을 때, 그 사상에 공통된 사상일치가 되어 질 때 하는 말임이 분명하다. 그분에게 그런 지적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마다 내 기도가 좀 부족했다, 모든 청중이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한데서 받는 은혜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역군이 먼저 자기 감각의 총동원으로 교인들을 대할 때 그의 감각도 총동원되게 된다. '우리를 주목하라'는 것은 내 감각의 총동원으로의 이 말에 할 때 상대방도 그 감각이 총동원되어진 것이다.

일제 탄압이 교회를 향하여 극심해질 때 당한 일이다. 더욱 사각모 쓴 학생시대였다. 칠산 여한면 원세평교회에 가서 전도의 모임을 가졌다. 그때 500명 모이는 교회에 안팎으로 차고 넘쳐 칠팔백 명의 수에 이른 듯하다. 그때 정복 경부보가 긴 칼을 차고 부하를 거느리고 와 강단 아래 의자에 위엄 있게 앉았다. 우리 대원이 세 사람이라 악사도 있고 연사도 되었다. 회중들이 흐믈흐믈하게 녹아지듯 하는 그 찬송, 그 감각의 총동원이 역연했다. 그날 말의 초점인즉 "만주를 간다고 잘 살게 됨도 아니오 현해탄을 건너도 게다들이 우리를 잘 살게 하지 않는다"는 말에 그 경부보가 책상을 두드리며 '중지!'명을 내린다. 하던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말은 그만두고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을 몇 번 부르는데 그 부르는 찬송은 소리로만이 아니다 참으로 모든 감각의 총동원이었다. 그 때 그 경부보도 그 열렬한 불을 탄압, 혹은 해산시키지 못했다. 몇 번 천지를 진동하게 찬송을 부르고 끝을 냈다. 해산 명을 내릴 분위기가 못됐고 또 그리 많은 시간을 끌지도 않고 폐회한 다음에 내가 곧 바로 그 경부보에 찾아가서 무엇 때문에 중지명을 내렸느냐고 정중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지성인들로서 이렇게 많이 모인 대중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가도 저기가도 못산다는 선전을 하니 치안 맡은 우리는 그렇게 함이 못마땅해서"라고 하기에 "우리의 살길은 여기 있다. 결론인즉 예수 믿어 사는 길이 있음을 말할 참인데 중지를 시키니 그 희망 있는 말을 못한 것입니다. 내일은 결론의 말을 할 때까지 두어보세요. 우리가 동포들에게 낙망을 주려 이렇게 다니겠느냐?"고 했더니 "원고를 보여주고 이야기하라"고 한다. 그래서 그 이튿날은 원고를 써주기도 했다.

순교할 때도 감각이 다 동원됐을 때 가능한 것이다. 반짝하는 한 조각의 감각 가지고는 못한다. 물량을 위한 총동원 운동을 하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기도로 하는 총동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도 이렇게 해야 교인도 동원된 감각으로 믿음이 밝게 나타난다. 흔히 하나만의 감각으로 무엇을 보았다. 무슨 소리가 들렸다. 무슨 냄새를 맡았다 등등 말하다 이단 사설을 받기도 쉽고 이단자가 되기도 한다.

단상에서 그 감각이 다 동원되어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이는 말씀의 전달자인 목회자 자신의 감각이 총동원 된데 비례한다.

총동원 주일을 지켜 물량적 효과도 얻겠거니와 이런 운동을 기하여 모든 교인들이 영각의 총동원을 일으키는 운동으로 전진하게 함은 실로 목회의 가장 핵심의 역사인 것이다.

〈1권, 1996년〉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23)939-7323, (F)(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목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213)215-8523, Fax.(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30
주일2부 예배 : 오전 9:1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10
(Holywave:영어예배)
(KDC:한국어예배)
주일4부 예배 : 오후 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3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11:00
주일3부예배:오전 10:50
새 벽 기도회:오전 6:00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동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213)483-6625, Fax.(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통예배: 오전 9:30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323)466-1234, Fax.(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 림 교 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젊은 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새벽5:30(월-금), 6:00(토)
Tel.(626)793-0880, 0200 Fax.(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주 일 학 교: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비전Acts 1:8 새벽기도: 오전 6:30(토)
중,고,대,청년부: 오후7:30(금)
www.samsungchurch.org
Tel.(562)690-9800, Fax.(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정명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ijoopeacechurch.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2:30(영어)
주일예배 5부: 오후 2:00(청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2부 대 예 배: 오전11:15
주일영어예배: 오후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새생명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한어 2부예배: 오전11:00
성 경 공 부: 오후 7:0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교 육 부: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818)952-2449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오후예배: 오후 1:45
금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5:30
교육부주일예배 : 오전 11:00
Tel.(818)249-2871, Fax(818)249-0516
www.laapc.org
2720 MontroseAve. Montrose, CA 91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한종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
(화-토)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창 대 교 회

담임목사 : 이춘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영어)
중고등부성경공부: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 요 찬 양: 오후 7:30
www.gpc.com
Tel.(909)388-2940, Fax(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dino, CA 92408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15(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이집트의 혼란과 무슬림 형제단의 전략적인 상황 왜곡

14일, 군부와 시위대의 유혈 충돌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집트가 심상치 않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다소 편향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일례로, 한국의 중앙일간지들도 군부가 반정부 시위대들을 강경진압하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광적인 공권력으로 군부를 보도하고 있다. 임시 정부인 군부는 언론과 국제 사회의 무차별적인 난타 속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런 기사의 인터뷰 대상이 시위대 즉,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반인 무슬림 형제단 인사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에서 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의심스럽다고 하겠다.

BBC Arabic의 경우도, 대부분의 언론들이 현 정부인 군부를 비판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고 보도했다. 오히려 무슬림 형제단이 상황을 더욱 과격하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또 다른 뉴스들이 있어 함께 나눈다. 또한 이 소식통은 분노한 무슬림 형제단과 그의 지지자들이 현지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보복과 방화를 일삼고 있음을 알려왔다. 이집트 현지의 소식통으로부터 17일 아침 도착한 두 개의 이메일 전문을 게재한다.

1. "이집트는 불타고 있습니다"(Egypt is burning)

2013년 8월17일(토) 07시 49분 12초

이집트는 점점 내전 양상으로 변해가는 형국입니다. 처음에는 친무르시와 반무르시 진영의 힘겨루기였던 모양세가 이제는 무슬림 형제단과 그를 지지하는 이슬람 세력들과, 현재 임시 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세속 자유진영 간의 대립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이집트 전국에서 일어난 시위로 최소 7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됩니다. 사망자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의 중요 광장에서는 군인들이 탱크와 장갑차로 길을 막고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전국 도시의 모스크에서 금요기도가 끝난 이후 사람들이 가두시위로 몰려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제 총을 쏘며 격렬하게 시위하였고, 경찰서와 관공서에 불을 질렀습니다.

서방 언론은 이집트 임시정부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대에게 발포해 무고한 시민을 수백명(3일전 시위에서만 600명 이상) 살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내부에서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좀 각도가 다릅니다.

수많은 시민이 경찰의 총에 의해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 임시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현 임시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에서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무슬림 형제단과 이슬람주의자들의 무자비한 선동과 폭력 또한 이 사태를 나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사망자들에 대한 분노의 차원을 넘어 악랄하게 보복하겠다는 기세입니다. 이 나라를 파괴하고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은 3일전 무력진압을 하기 전 부터 그랬고, 그것이 그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이 나라의 수많은 관공서와 경찰서,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는 기독교인들의 집과 가게, 그리고 교회들이 불타고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일반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형제단과 이슬람주의자들의 모습을 경험해 알기 때문에, 무르시를 그토록 반대하며 궐기하였고, 그 결과 정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은 너무 쉽게 흥분하고 이성을 잃는 이들의 민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위대의 시위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반란입니다.

임시정부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가다듬기도 전에 말입니다. 밖에서는 서방의 압력이 거세고, 안에서는 이슬람주의자들의 연합전선이 악랄합니다. 이 임시정부가 넘어지게 되면 앞으로 중동의 아랍권 나라에서 자유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이 더욱 탄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임시정부가 세워진 것이 이슬람이 국교인 이 나라에 자유적인 사상을 확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전의 무바락 정권이나 무르시 정권보다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임시정부가 행정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앞으로 헌법 개정과 여러 가지 선거들을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엘 한네이야는 이집트 군대가 이슬람에 적대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이 이 나라 군대와 정부에 대해 가지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 "오늘 이집트 임시 대통령은 오바마가 무슬림 형제단들의 폭력을 더 선공한다고 맹렬히 비난했다"(현지 선교사 전언)

"조금 전 뉴스에서 기자 지역의 기독교인 가게들이 습격 받아 물건들이 다 털리고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이 밤도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워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1)이 나라가 내전의 초입에 있지만 이 상황의 출구가 있도록. (2)이슬람주의 세력이 더 이상 득세하지 못하도록. (3)복음이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방 나라들에서는 인권적인 면만 부각하여 이집트 임시정부를 비난하는데, 무슬림 형제단은 이 점을 십분 활용하여 서방의 동정을 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폭력을 선동하고 유발하는 시위를 하여 사망자가 늘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이 죽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지 선교사의 보고와 외신의 평가, 지난 주간 이코노미스트지는 이집트 특집기사에서 무슬림 형제단의 세력은 1/4이 못되며, 임시정부는 세속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기독교인 2명, 여성 대표 등으로 골고루 전문가들을 등용하는 균형 잡힌 정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무슬림 형제단의 실패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현지 중립적인 입장의 일반 시민들은 도리어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고 한다.

외신이나 한국 신문들은 과격 종교 세력의 폭력과 기독교회를 향한 무슬림 형제단의 보복폭력은 침묵하는 것에 유감을 금치 못한다.

[기사 넘쳐 십자말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카이로의 람세스 광장에서 시위하는 무르시 지지자들

불붙은 정부청사

앞으로 매일 시위를 감행할 것이라는 무르시 지지자

불타는 카이로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철야: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Website: nyjbc.org
Tel.(718)279-2757, 2758, Fax.(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18)639-3021, Fax.(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516)333-1757, 목사관.(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야예배: 오후 8:45
Tel.(718)482-7788, Cell.(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Tel.(732)310-0022(교회), Fax.(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친유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516)277-1103, Cell.(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704)-841-0821, Fax.(704)841-1625
목사관: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303)-422-6950, Fax.(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부(영어): 오전 10시, (한어): 오전 11시
유치, 유년ㄴ부: 오전 10:00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410)337-9448, 882-0181, Fax.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융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타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l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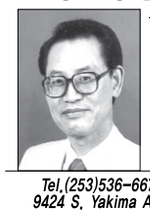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s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토,주일)
Tel.(410)203-0516, Fax.(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
Tel.(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열린)
Tel.(253)535-6207, 531-8424
Fax.(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영어예배: 오전 9:30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밤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253)536-6675, Fax.(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피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젊은이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kpcaz.com
Tel.(480)726-0191, Fax.(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860)643-4738, Fax.(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41)

5. 보수적-복음적 기독교 교육

(Conservative-Evangelical Christian Education)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오늘은 그 마지막 예로서 우리 한인교회교육의 제자도 교육(Discipleship Education)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Making disciples of Christ)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는(Making disciples of one's own) 행태들로 왜곡되는 일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제자도(Discipleship)"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상태(thestateoffollowingJesusChrist)"이며, 이는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followersofChrist)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일구어져 갑니다. 이는 일상의 삶에서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 실천함을 통해 그 복음을 확증하는 것으로 구현됩니다. 따라서 바르게 이해되고 실행되는 "제자도교육/제자도를 강조하는 교육(Discipleship Education)"이라함은, 우리의 섬기는 지체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 who make disciples of Christ)"이 되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우선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도록 모든 교육적 노력들을 통해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결단이 일생을 통해 그들의 성화해 가는 삶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또한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그 체험한 복음을 들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삼는 실천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하심에 주로 모시고 따르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제자도 교육을 표방코자했던 한 예로, 보수적 복음적 신앙과 신학을 가진 한국 교회들에서 지난 30여년 이상 많이들 채택해 실행해 온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지체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취지로 일종의 소그룹 교육 및 멘토링의 방법론을 가지고 진행되어온 성경공부 및 영적, 인격적 성숙 훈련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성공한 듯이 보여지면서—특히 교회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한인교회들에서도 유행처럼 이러한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그 목표, 취지, 방법론,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 그 실행 속에서 드러난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Making disciples of Christ) 교육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는(Making disciples of one's own) 교육을 행하는 왜곡"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인 교회들에서는—한국 교회들에서도 물론— 참된 제자도 교육을 실행하고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채택했지만, 그 실행과정에서 안타까운 결과들을 마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물론 최근에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한인 교회 안에서도 이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반성의 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보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제자도 교육을 행하고자 마음과 뜻을 모으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자도 교육"도, 이를 모토로 삼은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도 그 실행과정에서는 약점을 드러냈지만 실상 그 본질은 귀하고 선하며, 이에 우리 교회들이 추구해왔고 마땅히 추구해야하는 지향으로서 지극히 성경적인, 보수적 복음적 신앙과 신학에 부합하는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행상의 약점들 때문인지, 혹자는 이러한 교육이 "제자" 그리고 "제자됨" 을 지나치게 값싸게 취급하고 있다고 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따르려는 의지 없이 자기의 기득권을 고스란히 움켜쥐고서, 자신의 영적 우월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부로 "제자 및 제자됨"을 들먹이고 있다고 말하며 그 본질의 선함조차 비판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얼굴이 두껍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도 교육(제자훈련 포함), 그 본연의 의도와 의미만큼은 값싼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론적으로 접근해 볼 때, 이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라"는 그리스도의 요구에 응답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를 버리고, 그를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의 명령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꾸준히 돕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 스스로도 이미 참된 제자가 되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참된 제자가 되어가기 위해 그래서 참된 제자도를 실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말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마땅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반성해야 하는 지점은 어쩌다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선한 본질은 희석되고 실행과정의 약점이 크게 드러나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적극적으로 이를 고치고, 또 혹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면 확실히 경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우리 한인교회교육의 제자도 교육(Discipleship Education)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Making disciples of Christ)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는(Making disciples of one's own) 행태들로 왜곡되어온 이유는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참된 제자도를 행한다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한 시점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소홀히 했던 탓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제자도를 행한다는 것은 일생을 통해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끊임없이 성화해 가야할 성도의 삶이 동반되는 것이라는 점을 어찌된 일인지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일에는 끝이, 완성이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위와 같은 오류에 빠져서는, 자신들 스스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어가지 위해 몸부림치면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제자됨을 기정사실화하고는 말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닌 자신의 제자들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 면면들을 살펴보자면, 물론 의식적으로 그리 하지는 않았다 해도, 어떤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제자도 교육의 선한 본질을 호도하여,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마치 자신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인 양 성도들을 교육해버렸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교회를 경험했지만 신앙이 아닌 비본질적인 요인들으로 흔들리는 자들을 자기교회의 제자로 삼는 것에 열중하여 자교회의 성도수를 늘리고 자교회 만의 부흥을 목표로 하여 자교회 이기주의를 북돋우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개교회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자기 자신의 제자들을 삼아 힘겨루기를 하고, 종래에는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에게는 본래의 죄의 성향이 남아있는지라 끊임없이 성화해가지 않는다면, 죄성이 발현되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자신을 세우고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과 자기의 것을 만들어 움켜쥐려하는 욕심과 이웃들이야 어찌되든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우리에게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서,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끊임없는 몸부림을 소홀히 했을 때, 우리의 제자도 교육은 선한 본연의 의미를 잃고 마땅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로 되어있는 자들을 우리 자신의 제자들로 빼앗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부족한 인간이기에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부지불식간에 흔들려 버리고 말았을 테지요.

하지만 결코 이러한 실수와 약점 때문에, 본질적으로 선하고 귀한 제자도 교육 자체를 폐기처분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악한 사탄이 주는 아이디어이며 사탄이 원하고 기뻐할 일일 뿐,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수와 약점의 이유와 면면들을 알았으니 이제 인정하고 고치고 개선하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또 남아있다면 또 고치고 개선하면 됩니다. 선한 일을 하다 낙심치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은 선한 본질의 제자도 교육을 실행하는 스스로의 사역들에서 상기한 약점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경계하며, 이미 드러나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치며, 스스로 더욱 가열차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일에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속〉

제자도 교육, 예수님 제자 아닌 자신의 제자 만들 수도

제자됨은 일생의 진행형...성화과정 성도의 삶 동반돼야

교회 론 도와드립니다. (516)227-1203, revpakm@gmail.com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예수님의 새 계명(요14:15)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형제자매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세 가지 의미에서 실천적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입니다. 선생으로 가지고 있는 특권을 버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섬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제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해나갈 때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 보혜사 성령 하나님1(요14:16-18)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진리의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하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내 말할 바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낯선 이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수 보혜사 성령 하나님2(요14:16-18)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사역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짙게 드리워진 불신의 안개를 거두며 한발씩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실 때,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며,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합니다.

목 보혜사 성령 하나님3(요14:16-18)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보혜사는 "Comforter"입니다. "Com+Fort"는 "함께 한다"는 뜻의 "with"와 "강하게 한다"는 "fortis"가 만난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Comforter"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믿음의 약골인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강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함으로 강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불어넣어주신 믿음의 기백이 여러분에게 불어넣어지길 소원합니다.

금 보혜사 성령 하나님4(요14:16-18)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어떤 사람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모든 방향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인도하심부터 구체적이고 섬세한 인도함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방향을 잃었다 생각할 때 성령께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가장 정확한 길을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토 예수님의 약속1(요14:19-24)

제자들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예수께서 떠나신다는 소식은 제자들에게 큰 상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실의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약속은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첫번째 약속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을 통해 끝난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의 가르침과 사역들은 계속 진행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살아계시며, 서로가 서로를 경험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삶은 죽음 이후에 경험되는 것이지만 제자들의 부활의 삶은 죽음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미리 경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16)

– 유 경 옥 전도사 (화가, 수곡미술선교회 회장)

노을진 유대광야

F. 남방 사해 지역

F-2. 마사다(Masada)

"73년 5월 어느 날 유대인 여인 2명과 5명의 아이들은 마사다의 어느 동굴 속에 숨어 어제 로마 군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난공불락으로 알려진 자신들의 요새 성벽이 무너지고 불로 난장판이 되자 재공격을 하기위해 로마 군인이 일시 물러간 틈에 자신들과 70년부터 동거 동락하던 항쟁공동체 953명이 명예로운 자결의 의미를 담은 죽임들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는 소설이 아니다.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유대인의 전쟁기'를 마사다 최후의 날에 살아남은 이들의 증언을 기초로 썼기 때문이다.

마사다로 걸어서 올라가는 길

66년 일어난 유대인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고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자 엘리아살 벤 야일이 이끄는 항쟁 투사들과 가족들은 헤롯이 반란에 대비해 다목적으로 지어놓고 여름 별장으로만 쓰다가 죽은 이곳 남쪽의 마사다로 이동했다. 로마 10군단의 실바(Silvar) 장군은 70년부터 3년간 유대인 노예 6000명을 포함한 로마군인 만오천명을 동원해 유대광야 쪽의 경사로를 쌓아 램프로 이용해 공격해 온 것이다.

그날 밤 야일(Yair)은 모두를 소집하고 비굴한 항복으로 로마 노예가 될 것인지, 저항하다 몰살당할 것인지, 명예로운 자결형식의 죽음을 택할 것인지를 역설하고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후에 자살은 금기이므로 가장이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고, 죽은 가족들을 안고 목을 내밀면 도자기 파편에 이름이 쓰여진 10명의 제비 뽑힌 남자들이 남은 남자들을 죽이는 플랜을 명했다. 남은 열 명에서 다시 한 명을 제비뽑아 9명을 죽인 후 최후 자살을 했던 것이다(야일이 끝까지 남아 10번째 사람을 죽이고 자살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헤롯이 수천 명이 몇 년을 먹을 수 있도록 곡식 창고 항아리에 쌓아놓은 곡식을 남겨두어 유대인들은 곡식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결의를 보이기 위해 곡식을 남기고 다른 것은 모두 불태우고 밤새 죽어 새벽에 로마 군인이 입성했을 때는 적막만이 흘렀고 예의 남은 7명은 차마 죽이지 못했다고 하니….

슬프고, 무섭고, 의연한, 거룩한 무저항의 저항…. 이 실화 앞에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다. 유대인 뿌리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에 홀로코스트에서도 마사다의 죽음처럼 그냥 죽어갔을까? 의문점이 풀려가는 듯도 했다.

'산의 성'(메쓰다)에서 유래한 이름을 가진 마사다는 '산성', '요새'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남쪽의 유대광야에서 동쪽, 사해 남단부에서 서쪽으로 4km정도 떨어진 천연의 요새이며 하스모니안 시대에 것에 다시 지은 인공 텔이기도 하다. 둘레가 1300m인 타원형으로 높이는 해발 434m(해수면이 낮은 400m 포함)여서 사해 쪽에서 보면 매우 높게 보이나 유대광야 쪽에서 보면 그 쪽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니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모세 다이얀 시대부터 "이스라엘 국방군의 마지막 훈련소를 이곳에서 행하고 마지막 의식으로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게 하지 않는다(Masada Never Again!)"를 외치게 한다고 하니 우리도 삼전도비나 6.25비, 파고다 공원 등에서 중국이나 공산당이나 일본에게 다시는 한반도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각오를 상징적으로나마 고취시키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F-3. 엔게디(Ein gedi-Engedi)

마사다에서 쿰란을 가기 위해 북쪽으로 10Km쯤 가면 왼쪽에 유대광야의 한 부분인 엔(샘) 게디(새끼염소)'새끼염소의 샘'이란 뜻을 가진 지역이 나온다.

500여명이 일하고 있는 엔게디 키브츠에서는 해마다 독일, 핀란드의 고정고객 및 수많은 순례객과 관광객들을 위해 사해 온천욕장, 숙소와 주변 환경을 관리하고 보호한다. 보리수, 바오밥나무, 종려나무, 고벨화(헤나), 선인장, 사막장미, 클레오파트라의 향수원료를 보급하기 위해 이곳에 심어졌던 발삼나무 등은 물론, 유대광야 협곡과 많은 동굴과 샘과 폭포가 어우러진 사막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고 특히 염소는 바바라 양과 비슷한 산양을 말한다. 험준한 광야의 협곡을 누비며 살아야하는 새끼 염소(young ibex)는 샘이 절대적인 생명줄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곳에 숨어 지낼 때 사울이 잡으러왔다가 잠이 들자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진언을 해도 뿌리치고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하여 옷자락만 베고 누구도 사울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명을 내린 곳이라는 것이리라(삼상23: 29, 24:1-3).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 다윗이니 그 이름을 딴 '다윗의 폭포'도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머문 곳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승리이니 협곡의 기적이요, 광야의 샘이리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큰 바위에(피난처요 쉼터로 그늘과 반석의 물로) 숨기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 내 영혼의 엔게디를 나는 사랑한다.

F-4. 쿰란(Qumran)

쿰란은 1947년 한 베두인 양치기 소년에 의해 항아리에 담긴 두루마리(구약성경)가 발견된 곳이다. 퇴적이암산 토굴에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자 성경을 보관하고자 에세네파 공동체가 필사한 성경을 항아리에 담아놓고 흩어진 것이다. 이를 발견하게 되자 차례로 두루마리를 발굴해서 이 항아리 뚜껑 모양을 크게 형상화한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소장하게 된 이후 급격하게 순례객들이 많이 다녀가는 곳 중에 하나가 된 곳이다. 성경이 4세기 이후에 쓰여졌다며 편집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코가 납작해지기도 했다.

유대광야 서쪽 끝자락에 걸친 이곳 사막지대는 예수님 당시에나 에세네파 이전 먼 시대부터도 경

두루마리 성경이 담겨있던 항아리(쿰란동굴)

전을 쓰며 칩거하는 공동체가 있었던 곳이다.

현재 그 터는 일부가 복원돼 회당, 정결의식을 하는 목욕탕(성경을 쓰기 전 반드시 목욕했다), 주방, 세탁실 등의 터가 있었다. 특히 목욕 후 모여 성경을 일점일획도 틀리지 않게 쓰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을 법한 필경방 터를 보자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 지하에 제롬이 성경을 쓰던 방이나 독일에서 본 루터가 숨어 지냈던 성의 방이 연상되면서 가슴이 뛰었다. 내 손에 들려진 귀한 성경책이 이 과정을 거쳐왔을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 최근에도 성경필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필자는 최근 섬기는 교회에서 세이래 새벽기도를 하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빨간색 글씨)만 쓰기'를 하는 은혜도 받았다.

한국어로 된 영상도 보여주는 실내 관람관에는 당시에 발견된 항아리 모형 등이 진열돼 있어 실감을 더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리라…."

F-5. 사해 수영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을까. 초콜렛 공장의 스토리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면 되는 곳이 사해다. 무엇을? "사해 물에 들어가서 첨벙대지 말 것", "물속에서 미끄러지지 말 것"이다. 바다 바닥이 머드(진흙)로 되어있어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천천히 드나들어야 한다. 이미 둥둥 떠 계신 분, 벌써 눈이 너무 따가워 뛰쳐나오는 분, 그러다 또 한번 넘어지는 분도 만났다.

미네랄의 보고, 에스겔의 예언대로 사막에 엔게디처럼 꽃이 피고 요단강이 아라바(사해)로 흘러 소성케 하고 단물이 되니 소금물이 보화가 되겠다(겔47:10-12). 종말에는 이곳이 어떻게 될까? 척박한 이스라엘 땅이 물 호스로 연결돼 비옥한 땅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했다.

F-6. 여리고(Jericho)

예부터 '방향의 성읍', '종려의 성읍'이라고 알려진 구약의 여리고와 신약의 여리고, 비잔틴 시대의 여리고는 각각 유적이 있지만 약간씩 위치가 다르다.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도착한 첫 성, 6일간 매일 7명의 제사장이 나팔만 불고 백성은 침묵으로 한 번씩 돌고 제 7일에는 6번 돌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돌고 나팔을 불 때 모두 소리쳐 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기니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전적으로 보여준 여리고.

무너진 여리고성

순종과 기적의 함수를 잊고 사는 우리에게 다시금 아이성의 실패를 하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곳이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세의 인도로 시작한 탈애굽은 요단강 도강 후 이곳에 와서 드디어 이뤄졌고 동시에 새 언약시대를 열어가게 되니 감개무량하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1868년부터 1997년 아니 오늘까지 많은 고고학자들이 몇 번의 발굴시도를 통해 공방을 계속하며 성경 속의 여리고를 알아내고 있는 것이다. 기생 라합의 구원과 후일 족보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을 예시한 섭리의 성 여리고는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온 곳은 예루살렘에서 광야를 거쳐 내려가는 신약시대 여리고다.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로 알려진 나무는 우리가 마을 어귀에서 본 주염나무 비슷한 커다란 들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두 명(성경 상에서) 고치셨을 때 바디메오(마20:29)와 삭개오를 방문하셨을 때(눅19:1-10)와 강도를 만난 사람을 구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눅10:25-37) 등장한 곳이다.

일정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나오는 '시험산'을 정면에서 보았다. 약간 쌀쌀하고 바람이 심한 날씨에 보아서인지 해를 등지고 있어서인지 의외의 낭떠러지로 된 높은 산으로서 을씨년스러웠다. 지금(8월 현재)도 먹고 있는 유명하기로 소문난 여리고산 말린 무화과와 대추야자를 여기서 샀다.

F-7. 유대광야

유대광야로 들어서니 전에 처음 왔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원에 온 심정으로 조금씩 흩어져 소리내어 기도했던 기억이 새롭다. 같은 지점을 지금은 저녁 때 돌아봤다. 공생애 시작을 금식으로 준비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이 사역기간이자 동시에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사고 또 기도했다. 돌 많은 그 언덕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제대로 좇아온 셈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끝〉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 기간 : 2013년 8월 22일(목) ~ 31일(토)
9월 2일(월) ~ 12일(목)

| 시간 : 오후 7:30, 새벽 5:30, 오전 10: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목사)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213)382-1450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 강화 · 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본당, 부속건물